

S#1. 복내장터 / 낮

별이 따갑다.

악자지껄한 장터. 국밥집 연기와 옹기 좌판 사이로 장꾼들이 뒹켜 오간다.

장터 입구. 둔탁한 군화 소리. 웅성거리던 소리가 하나둘 잦아든다.

총을 멘 일본 헌병들이 장터 안으로 들어선다.

옹기전 앞, 이관회. 헌병 장교의 총구가 천천히 그의 턱밑으로 올라온다.

조금 떨어진 좌판. 염재보의 무릎 위에 놓인 길쭉한 짚명석.

헌병 하나가 손을 뻗는다.

헌병 (일본어) 그거 내놔.

재보의 손이 명석 아래로 미끄러진다.

손끝에 닿는 낡은 화승총의 쇠붙이.

관회의 턱밑. 총구가 더 깊숙이 밀려든다.

숨죽인 장터.

그 순간-

쿵.

무거운 지게가 흙바닥에 거칠게 내려앉는다. 헌병들의 시선이 장터 한복판으로 쏠린다.

빈손의 규홍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안규홍 어이.

헌병 장교가 규홍의 거구와 흙 묻은 저고리를 뚫어져라 응시한다.

규홍이 피식 웃는다.

안규홍 아, 느그들은... 여수서 돈 자랑 말고, 순천서 인물 자랑 말고, 보성서

한 걸음.

안규홍 주먹자랑 허지 마란 말 못 들어봤냐?

그게 나여.

퍽-!!

규홍의 주먹이 헌병 장교의 턱에 정통으로 꽂힌다! 장교가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진다

과 정

S#2. 안규홍의 집 / 새벽

아궁이 안. 꺼져가는 불씨 하나.

후 -

누군가 입김을 분다. 불씨가 붉어진다.

다시 후 - 불이 붙는다. 그 앞에 쪼그려 앉은 규홍.

아직 눈도 덜 떴다.

약봉지를 뜯어 약탕관에 넣으려 한다.

어머니 반만 넣어라잉

규홍은 남은 약재까지 전부 털어 넣는다.

안규홍 아낄것이 따로있제, 뭘 약을 아낀다요.

약탕관 뚜껑을 닫는다. 아궁이에 장작 하나. 툭.

규홍이 일어난다. 구석에서 지계를 든다.

어머니 밥은?

규홍이 허리춤에서 찬밥 보통이를 툭 들어 보인다.

안규홍 여그 있소

어머니 반찬은?

규홍이 보통이를 다시 넣는다.

안규홍 밥이 반찬이제. 땡겨올라요.

규홍이 사립문을 밀고 나간다. 문이 닫힌다.

잠깐. 다시 벌컥- 문이 열린다. 큰일이라도 난 듯 규홍의 얼굴만 불쑥 들어온다.

안규홍 오메! 엄니!

어머니 (놀라 일어나며) 왜, 뭘 일여!

규홍이 씩 웃는다. 능청스러운 표정.

안규홍 약 아끼지 말고 다 드쇼잉.

어머니 저놈이 진짜...

문이 다시 닫힌다. 어머니는 닫힌 문을 보다가 피식 웃는다.
약탕관 주둥이에서 하얀 김이 오른다.
사립문 밖, 멀어지는 규홍의 지젓다리 짙는 규칙적인 소리.
탁. 탁. 탁.

S#3. 박제현 집 마당·일터 / 아침

피약별이 내리쬐다.
일꾼 셋이 커다란 벚짐을 지게에 얹으려다 기우뚱, 흙바닥에 처박힌다.
비명과 흙먼지.
평상에 앉아 짙신 끈을 조이던 규홍이 일어난다.
규홍이 쓰러진 벚짐 모서리를 발끝으로 툭 건드려 본다.
혈떡이는 늙은 일꾼을 본다.

안규홍 아재는 빠져요. 허리 나가겠소.
 (뒤편 장신 일꾼에게) 네가 뒤 잡아.
장신 일꾼 내가?
안규홍 팔 길잡여

규홍이 벚짐 모서리를 잡는다.

안규홍 둘에 든다. 하나, 둘.

규홍과 장신 일꾼이 동시에 힘을 준다.
벚짐이 거짓말처럼 쑥 들러 올라간다. 남은 일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본다.
그때 안채 쪽에서 법화댁이 보자기에 쓴 작은 꾸러미를 들고 나온다.

법화댁 개홍아. 이따 장에 가제?
안규홍 네 마님. 엄니 약 지으러 갑니다.

법화댁이 보자기를 건넨다.

법화댁 짙신전 최 서방한테 이것 좀 전해줘라.
안규홍 예. 마님

규홍이 보자기를 지게 틈에 끼워 넣고 대문으로 향한다.
몇 걸음 걷는데- 사랑채 열린 문틈 사이로 낫술상을 사이에 둔 두 양반의 언성이
새어 나온다.

박진성 세금은 더 걷고, 땅문서는 지들 맘대로 가져가고..이래도 가만있어야 쓰것소?

규홍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진다.

박상현 괜히 나섰다가 집안부터 거덜납니다.

박진성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야 있나.

규홍이 몇 걸음 가다가 문밖에 우뚝 선다. 지게 작대기 끝으로 흙바닥을 툭 짚는다.

안규홍 근디 계속 손 놓고 계신 것 같은디요.

문 안, 정적.

박진성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규홍이 문 쪽을 힐끗 본다.

박상현 뭐라 했느냐?

안규홍 아니... 기침만 해서는 쥐새끼도 안 도망잡디다.

박진성 (벌떡 일어나며) 머슴 놈이 감히

박제현 개홍아.

규홍이 멈춘다.

박제현 가봐라.

안규홍 예.

규홍이 돌아선다. 박진성의 시선이 그 등에 꽂힌 채 떨어지지 않는다.

대문 옆 텃돌.

달래가 기다리고 있다. 규홍을 보자마자 얼굴부터 살핀다.

달래 또 사고 쳤지?

안규홍 내가 뭘.

달래가 사랑채 쪽을 한번 본다.

달래 저 안이 저렇게 조용한디 뭘 안 혀.

달래가 삶은 감자 하나를 내민다.

규홍이 지게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달래가 내민 감자를 받는다.

규홍이 감자를 베어 문다. 앗, 뜨겁다. 그래도 태연한 척 씹는다.

달래 뜨겁제?

안규홍 안 뜨거.

달래 눈물 나는데?

규홍이 고개를 꺾 돌린다.

안규홍 연기 들어갔어.

규홍이 달래를 흘겨본다. 달래가 피식 웃는다.
규홍도 못 참고 웃는다. 지게를 다시 추켜멘다.

S#4. 복내장터 / 낮

장날. 생선 좌판, 닭장, 포묵전, 짬신전이 뽁뽁하다.
국밥집 술에서는 허연 김이 솟고 장꾼들의 고함이 뒤엉킨다.

지게를 진 규홍. 관희와 달래가 곁을 걷는다.

상인1 어이, 개홍이!

규홍이 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친다.

안규홍 (손사래 치며) 아, 안 해라!
상인1 나 암 말도 안 했는디, 뭐슬 안 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규홍은 지나가며 무거운 채소 광주리를 번쩍 들어 평상 위에 올려준다.
상인이 웃는다.

상인1 거 안 한다매.

규홍도 피식 웃는다. 관희가 규홍 손의 남은 감자에 손을 뻗는다. 규홍이 한입에 털어 넣는다.

이관희 드럽고 치사해서.

달래가 웃는다. 규홍이 지게 안쪽의 옥색 보자기를 보고 방향을 튼다.
짬신전. 규홍이 보자기를 최 서방에게 건넨다.

안규홍 마님 심부름이요.

규홍이 법화덕의 보자기를 건넨다. 최 서방이 받아 옆에 둔다.
규홍이 돌아서려는데 최 서방의 눈이 규홍의 발에 멎는다. 낡은 짬신 사이로 엄지발가락이 빠져
나와 있다. 최 서방이 새 짬신 한 켤레를 툭 내민다.

최 서방 야. 그거나 하나 갈아 신어라.

규홍의 얼굴이 환해진다.

안규홍 역시 사람이 정이 있어야제.

규홍이 짚신을 받으려는데 최 서방이 놓지 않는다.

최 서방 돈은 내고.

규홍의 손이 허공에서 뗏는다. 관회와 달래가 웃음을 터뜨린다.
그 순간— 장터 저편에서 고성이 터진다.

상인2(O.S.) 지난 장에 났다니까 그러네!

웃음이 끊긴다. 저잣거리 한복판. 배상도가 장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본인 징세원이 좌판 밑 곡
식 자루를 끌어낸다. 상인이 매달리자 조선인 순검이 걷어찬다.
관회가 슬쩍 규홍을 본다.

이관회 보지 마라.

안규홍 뭬.

이관회 니 얼굴이 벌써 보고 있잖여.

배상도 일행이 짚신전 앞으로 온다. 상도와 규홍의 눈이 마주친다.

배상도 개홍이나.

안규홍 상도냐.

배상도가 장부에서 최 서방 이름을 짚는다.

최 서방 지난 장에 다 났네.

배상도 모자라요.

최 서방 인자 없어.

일본인 징세원이 주변을 훑다가 조금 전 규홍이 만졌던 새 짚신을 집어 든다.
최 서방이 붙잡는다.

최 서방 그건 놔두시오!

징세원이 잡아당긴다. 최 서방도 놓지 않는다.

퍽!

군화가 최 서방의 배를 걷어찬다. 최 서방이 멍석 위로 쓰러진다.

규홍이 반사적으로 한 걸음 나간다. 관회가 즉시 규홍의 팔을 잡는다. 규홍이 멈춘다.

최 서방이 다시 일어나 짚신을 붙잡는다.

퍽—! 이번에는 얼굴. 최서방이 쓰러지고 짚신 한 짝이 데굴데굴 굴러간다.

툭.

규홍의 낡은 짚신 발끝에 밋는다.
규홍이 내려다본다. 천천히 고개를 든다.

S#5. 복내장터 / 낮 - 계속

탁! 규홍이 지게를 털썩 내려놓는다. 최 서방 앞에 쏘그려 앉아 흠 묻은 짚신을 집어 옷소매로 툭, 툭 튄다.

최 서방 (피 묻은 입으로) 됐다, 개홍아...

규홍은 말없이 짚신을 최 서방의 망태기에 도로 찢려 넣는다. 그 순간- 일본인 징세원1이 망태기째 낚아채려 든다. 규홍의 두툼한 손이 징세원1의 손목을 콕 붙잡는다. 징세원1이 눈을 부라린다.

징세원1 離世! (하나세! 놔!)

규홍은 손을 놓지 않는다.

안규홍 임자 있는 짚신이오.

배상도가 다급히 끼어든다.

배상도 손 놔라, 개홍아. 니 일 아니여!

규홍이 상도를 본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

안규홍 남의 거 뺏으면 도둑이제.

장터의 소음이 하나둘 잦아든다.

징세원1이 규홍의 손을 거칠게 쳐낸다.

징세원1 邪魔するな! (자마스루나! 방해하지 마!)

징세원1이 규홍의 가슴을 확 밀친다. 규홍이 몇 걸음 뒤로 밀려 자기 지게에 부딪힌다. 규홍이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튄다. 허리춤의 엽전 꾸러미를 한번 만져본다.

안규홍 밀지 마쇼. 나 약 사러 가야함께.

규홍이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몸을 돌린다. 그 순간- 펙! 징세원1의 주먹이 규홍의 턱을 후려친다. 규홍의 고개가 핵 돌아간다.

달래가 숨을 삼킨다. 관희의 얼굴도 굳는다.

이관회 아이고...

규홍이 입안의 피를－ 뱉.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징세원1이 다시 주먹을 뺏는 순간－ 퍽－!! 규홍의 주먹이 먼저 얼굴에 꽂힌다.

징세원1이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진다. 쿵!

정적. 장터 사람들이 얼어붙는다. 규홍도 잠깐 자기 주먹을 본다.

그때 징세원2가 달려든다.

규홍이 돌아서며 한 방.

쿵.

장터 전체가 조용하다. 규홍이 좌우를 본다. 하나. 둘. 둘 다 안 움직인다.

규홍 얼굴이 순간 하얘진다.

안규홍 ...오메.

황급히 첫 번째 놈에게 달려가 코밑에 손을 댄다. 숨이 있다.

두 번째 놈에게도 댄다.

잠시 후－ 규홍이 가슴을 쓸어내린다.

안규홍 오메, 오메... 숨은 쉰다야.

관희가 달려와 규홍의 팔을 잡는다.

이관회 숨이 문제가 아니여! 너 지금 왜놈 둘을 때려눕혔어!

규홍이 그제야 주변을 본다. 수십 명의 장터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자신을 보고 있다. 조선인 순검이 칼자루를 잡는다. 규홍과 눈이 마주친다.

바닥에 뺏은 일본인 둘. 순검의 손이 칼자루에서 떨어진다.

멀리서－ 뻘이익－!

상인2 순사 온다!

관희의 얼굴이 굳는다.

이관회 개홍아. 인자 진짜 큰일 났다.

관희 손에 엽전을 몽땅 쥐여준다.

안규홍 엄니 약. 꼭 지어다 드려.

이관회 야, 너는－

안규홍 난 나리댁 가 있을랑께.
이관희 뭐??
안규홍 일은 해야제.
이관희 미친놈아, 일이고 뭐고 뛰어!

규홍이 몸을 돌려 달린다. 장터 사람들이 슬쩍슬쩍 몸을 비킨다.
순식간에 규홍 앞에 길이 생긴다. 규홍이 그 틈으로 사라진다.
바닥에는 일본인 징세원 둘이 뺨어 있다.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린다.

상인2 ...한 방씩이었제?

옆의 사내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장터를 빠져나간다.

S#6. 복내장터 / 낮 - 몽타주

조금 전 싸움이 끝난 장터.
사람들이 쓰러진 일본인들을 멀찍이 둘러싸고 웅성거린다.
한 사내가 옆 사람에게 낮게 말한다.

사내1 개홍이가 둘을 한 방씩에 보내부렀다네-

옆 사람이 바로 뒷 사람에게 전한다.

사내2 박 나리네 머슴 있제. 왜놈 셋을 맨손으로 잡았다드만

그 말을 들은 아이 하나가 눈을 크게 뜬다.
곧장 장터 골목을 뚫다 뛰어간다.

아이 개홍이가 왜놈 다섯을 때려잡았대!

사람들이 고개를 든다. 저 멀리 달아나는 규홍

장터 골목. 사람들 사이로 소문이 옮겨 붙는다.

“개홍이래.”

“박제현 대감네 머슴.”

“맨주먹으로 여섯 놈을 때려눕혔다드만.”

소문은 규홍보다 먼저 달려간다.

S#7. 박제현 집 마당 / 늦은 오후

규홍이 박제현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계를 들려는 순간.
대문 밖 호각 소리. 박제현이 마루에서 내려온다.
순사·순검들이 들이닥치고 뒤에 배상도.

배상도 야가 장터서 일본인 둘을 찔었습니다.

박제현이 규홍을 본다.

박제현 니가?

안규홍 먼저 때리길래요.

순검들이 규홍 팔을 꺾는다.
규홍이 반사적으로 버티자 둘이 휘청한다.
규홍, 잠깐 보다가 힘을 뺀다.

안규홍 살살 하쇼. 옷 찢어징께.

규홍이 끌려나간다.
마당 한가운데 남겨진 지계.

S#8. 안규홍의 집 / 해질녘 or 밤

어둑해진 부엌.
관희가 아궁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바람을 분다.
후- 후-
불은 안 붙고 연기만 왈각 올라온다.

이관희 콜록! 켱...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O.S.) 개홍이네?

관희의 손이 잠깐 멈춘다.

이관희 박 나리댁에 일이 쪼까 생겼답니다.
어머니(O.S.) 뭘 일이 저녁때까지 있당가.

관희가 대답을 못 한다.
그때 사립문이 열리고 달래가 들어온다.

관회와 눈이 마주친다.
달래가 방 쪽을 한번 보고 관회를 밖으로 부른다.
장독대 옆.

달래 개홍이 오라버니... 많이 맞겠재?

관회가 애써 웃는다.

이관회 암시랑토 안 혀.
 가가 누구한테 맞고 땡길 놈이냐.

달래는 대답하지 않는다. 관회도 웃음을 거둔다.
둘이 나란히 서서 어두운 사립문 밖을 바라본다.

S#9. 보성 주재소 옥사 / 밤

퍽! 퍽! 퍽! 으..음!

순사의 몽둥이가 규홍의 뺨을 후려친다. 고개가 돌아간다.
규홍이 입안의 피를 삼키며 숨을 고른다.

안규홍 내 말 좀-

퍽-

명치를 파고드는 몽둥이. 규홍의 상체가 꺾인다.
순검 둘이 규홍의 양팔을 뒤로 꺾어 짓누른다.
규홍이 버티자 두 순검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재보가 손을 멈추고 힐끗 쳐다본다.
규홍이 주먹을 쥐려다 말고, 스스로 숨을 내쉬며 힘을 푼다.

안규홍 (바닥을 보며 혼자 중얼...) 모기들이 많네.

순사가 혀를 차며 손짓하자, 순검들이 규홍을 밀치고 나간다.
철창이 닫힌다. 쿵.
규홍이 벽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고른다.
구석에 사내 하나가 앉아 헤진 짚신 끈을 고쳐 매고 있다. 염재보.
재보가 규홍을 한번 훑어본다.

염재보 개홍이요?

규홍이 재보를 본다.

안규홍 ...나를 아시오?
염재보 여까지 소문이 먼저 왔소.

규홍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안규홍 몇 명이랍디까.
염재보 일곱.

규홍이 고개를 뒤로 젖힌다.

안규홍 아이고, 염병...

그때-

복도 저편에서 처절한 비명. 규홍과 재보의 시선이 철창 밖으로 향한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순검들에게 질질 끌려온다.

의병사내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잖소!

퍽!

몽둥이가 등을 내리찍는다. 사내가 바닥에 꺾인다. 다시 끌려간다.
바닥에 긴 핏자국이 남는다. 규홍이 천천히 일어나 창살 앞으로 간다.

안규홍 저 양반은 뭘 했간디 왜놈들이 저란대요

재보는 짚신 끈을 당겨 묶는다.

염재보 의병인가 보제.

규홍이 돌아본다.

안규홍 ...의병이요?

복도 끝.

피투성이 사내가 어둠 속으로 끌려 사라진다.
규홍은 한동안 바닥에 남은 핏자국을 바라본다.

철컹!

옥문이 열린다.

순검 안개홍. 나와.

규홍이 돌아본다.

순검 박 나리 덕에 나가는 줄 알아.
 나가서 또 설치지 말고.

규홍이 뜻밖이라는 듯 순검을 본다.
재보와 잠깐 눈이 마주친다. 규홍이 감방을 나간다.
광!
재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짚신 끈을 당겨 묶는다.

S#10. 복내장터 / 낮

옥사에서 풀려난 규홍이 장터 골목으로 걸어 들어온다.
걸음이 느려진다. 어제와 사뭇 다른 풍경.
뒤집힌 좌판. 찢어진 명석. 깨진 그릇 몇 개가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상인 몇몇이 멍든 얼굴에 피딱지를 붙인 채 묵묵히 깨진 그릇을 줍고 좌판을 세운다.
규홍과 눈이 마주친다. 상인들은 슬쩍 시선을 피한다.
짚신전 앞.
최 서방의 아들이 엉망이 된 명석을 걷어내고 있다.
규홍이 다가가 멈춰 선다.

안규홍 최 서방님은...

아들이 핵 돌아본다. 눈에 원망이 가득 차 있다.

최 서방 아들 순사들이 끌고 갔소.

규홍이 굳는다.

최 서방 아들 어제 장터에서... 당신 도망가게 길 터준 놈들 대라면서.

규홍은 아무 말도 못한다. 아들의 눈이 붉어진다.

최 서방 아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소.
 (목이 메어) 그냥 가시오. 제발... 우리 눈앞에 띄지 마시오.

규홍이 천천히 시선을 내린다. 흙바닥
짚신 한 짝이 짓밟혀 있다. 규홍의 손이 굳게 말린다. 손끝이 파르르 떨린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
박제현이 도포 자락을 여미며 다가와 규홍의 곁에 선다.
박제현은 부서진 장터 좌판들을 둘러볼 뿐, 규홍을 쳐다보지 않는다.

박제현 왜놈한테 한번 대들고 나면... 너 하나로 끝나는 줄 아느냐.

규홍이 고개를 떨군다.

박제현 너 못 잡으면 니 곁에 있는 사람부터 잡아간다.
집안이고 이웃이고... 가리지 않는 놈들이여.

규홍의 눈이 천천히 장터를 훑는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망가진 좌판.

최 서방이 사라진 빈자리.

박제현이 규홍의 어깨를 묵직하게 한번 쥐었다가 놓는다.

박제현이 먼저 천천히 장터 골목을 빠져나간다.

규홍은 부서진 짚신 전 앞에 홀로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S#11. 안규홍의 집 / 새벽

푸르스름한 새벽빛.

규홍이 작은 봇짐을 꾸린다.

방 안.

어머니가 이불을 허리에 두른 채 벽에 기대앉아 있다.

규홍은 봇짐 끈을 묶으며 한참 말을 못 꺼낸다.

안규홍 어머니.

어머니가 본다.

안규홍 내가 여그 있으면...
 엄니도, 동네 사람들도 또 당할 것 같소.

잠시.

안규홍 쪼까 피해 있을라요.

어머니는 별말 없이 규홍의 봇짐을 본다.

어머니 쪼까가 열매나인디.

규홍이 대답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탕약을 한 모금 마신다.

어머니 밥이나 굶지 마라.

규홍이 피식 웃으려다 만다.

안규홍 예.

규홍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올린다. 이마가 방바닥에 닿는다.

안규홍 몸 성히 계쇼잉.
어머니 니나 성히 땡겨와.

규홍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있다.
이내 일어나 방문을 닫고 나간다.
사립문이 삐걱 열리고- 닫힌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달래 규홍에게 다가간다.

달래 오라버니. 진짜 가요?
안규홍 왜.
달래 진짜 몸 조심하시오. 그리고 이걸. 거 오해는 하지말고...

달래가 품에서 작은 옥가락지를 꺼낸다.

달래 우리 돌아가신 할매가 준건디, 액운을 쫓는 부적 같은 것이랑께
잘 지니고 계시시오.

달래가 억지로 규홍에게 쥐어준다.

안규홍 (들어보이며..) 이거 뭐여? 옥가락지 아녀?
달래 (누가 볼까봐 깜짝 놀라 숨기며...) 오메! 부적이란께!
잘 감추고 계시시오. 복 달아난께.
안규홍 어? 어... 알것어.

규홍이 품 안에 넣는다.

안규홍 하여간 너도 몸 조심허고, 위험헌게
뭉슬 막 헐라고 허지 마라이.

달래가 대꾸하기도 전에

안규홍 언능가.

헉! 돌아서 가는 규홍. 가는 규홍을 못 마땅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달래 미련 곰탱이 같은.... 그걸 또 믿고 자빠졌네....

몇 걸음 가던 규홍이 돌아본다. 달래가 얼른 입을 다문다.
규홍은 영문도 모르고 한번 쳐다보다 다시 몸을 돌린다.
규홍이 마지막으로 달래를 본 뒤 산 안쪽으로 몸을 돌린다.

S#12. 논둑길 - 갈림길 / 새벽

안개가 자욱한 새벽 논둑길.
규홍이 봇짐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걷는다.
뒤쪽 안개 너머에서 서걱, 서걱, 흙 밟는 발소리가 따라붙는다.
규홍이 돌아보지도 않고 묻는다.

안규홍 너는 왜 와.

안개 속에서 관희가 봇짐을 달랑거리며 불쑥 나타난다.

이관희 니 혼자 가면 또 사고 칠까 봐.

안규홍 집에 가라잉.

이관희 싫어.

안규홍 어디 가는지도 모르잖여.

이관희 너도 모르잖여.

규홍이 헛웃음을 짓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산길을 걷는다.
산 아래 당산나무 갈림길.
나무 밑에 앉아 짚신 끈을 고쳐 매던 사내 하나가 인기척에 고개를 든다.
염재보다.
규홍이 멈춰 선다.

안규홍 총은요?

염재보 왜놈들이 뺏어갔소.

포수한테 총 뺏고 알아서 먹고살라 하니,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관희가 둘을 번갈아 본다.

이관희 아는 사람이여?

안규홍 감옥 동기.

염재보 (피식 웃으며) 동기까지는 좀 그렇고.

재보가 짚신 끈을 조여 매고 일어난다.
규홍과 관희가 다시 산길을 오른다.
잠시 뒤-

재보도 말없이 그 뒤를 따른다.

S#13. 대나무 숲 길 / 아침

산길이 끝나고, 뽕뽕한 대나무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바람이 불 때마다 대숲이 서로 몸을 비빈다.

사각사각-

규홍, 관희, 재보가 한 줄로 숲길을 내려간다.

철컹.

대숲 사이에서 쇠붙이 맞물리는 소리.

재보가 즉각 멈춰 선다. 고개만 천천히 돌리는 순간,

대나무 사이로 총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반대편에서도 또 하나. 어느새 세 사람을 양쪽에서 겨누고 있다.

남자(O.S.)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디디면 가슴팍 뚫린다. 누구냐.

관희가 굳는다. 규홍이 움직이려 하자 재보가 팔을 내밀어 막는다.

염재보 (바위틈을 향해) 복만아. 총구 치워라.

정적.

바위 사이 총구가 아주 조금 내려간다.

남자(O.S.) ...누구요.

염재보 염재보다.

바위 뒤에서 사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거칠게 자란 수염.

낡은 두루마기 어깨에 화승총을 비스듬히 멘 복만.

복만이 재보 얼굴을 확인한다.

복만 ...염 포수? 똥진 줄 알았더니 질기게도 살아 있었네.

염재보 어린놈이 말버릇은 여전하구나.

미친개 패듯이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복만이 피식 웃는다.

두 사람이 다가가 서로 어깨를 거칠게 끌어안는다.

관희가 둘을 번갈아 본다.

이관희 아는 사람이여?

염재보 북쪽서 강 대장 따라 여기까지 내려온 놈이여.

복만은 곧 재보 뒤의 규홍과 관희를 본다.

표정이 다시 굳는다.

복만 저 뒤 피라미들은 다 뭐이라니?
이관회 뭐, 피라미? 어이 형씨, 거 말이-

규홍이 관회의 가슴을 손으로 막는다.
재보가 복만 가까이 다가가 낮게 몇 마디 한다.
복만의 눈이 규홍에게 간다.

복만 뭐라니? 왜놈 둘을 맨주먹으로 눌렀다고?

규홍이 피곤한 얼굴로 대꾸한다.

안규홍 그 얘기는 또 어째 여기까지 왔답니까.

복만이 푸하하 웃는다.

복만 이 종간나, 일찍 뉘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야.

관회가 규홍을 본다. 복만이 호수 쪽을 톡짓한다.

복만 일없오.
 여기서 이려고 있을 거면 우리 대장동무한테 가봅시다.

복만이 규홍을 본다.

복만 대신 하나 명심하라우. 여긴 대장동무 말이 곧 법이오.

규홍이 복만을 잠시 바라본다.

안규홍 ...가봅시다.

복만이 앞장서 대나무길 아래로 내려간다.
규홍, 관회, 재보가 뒤따른다.

S#14. 보성 호숫가, 강용언 임시거점 / 낮

늦은 오후
산길을 벗어나자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호수주변으로 자갈밭과 대지가 펼쳐져 있다.
대나무 숲이 바람을 막아주는 앞쪽.
그 앞으로 낮은 천과 거적을 엮어 만든 임시 막사 몇 채.
돌 화덕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사내들이 젖은 짚신을 말리거나 화승총을 담고 있다.
등짐과 곡식 자루들은 언제든 뜰 수 있게 묶여 있다. 관희가 호수와 막사를 둘러본다.

이관희 여그서 산다고?
복만 사는 건 아니오. 며칠 묵었다 또 옮기는 거요.

바위 아래 큰 무쇠솥. 감자를 으깨 넣은 뭍은 죽이 끓고 있다.
복만이 멍석을 발로 툭툭 털어 자리를 내준다.
토기 사발이 하나씩 돌아간다.
관희가 뜨거운 죽을 후후 불며 허겁지겁 들이켈다.

이관희 이것도 두 그릇 줘니까?
복만 처음 온 놈이 양심도 없구만 기래.
이관희 배가 등쪽에 붙었구만.

재보가 제 사발의 죽을 관희 그릇에 덜어준다.

염재보 먹어라. 입이라도 조용해지게.

주변 의병들이 피식 웃는다. 규홍도 죽 한술을 뜬다. 따뜻하다.
그때, 중앙 뒤쪽 천막에서 걸어 나오는 사내. 칼을 찬 강용언.
그을린 얼굴에 풍채가 당당하다. 의병들이 길을 터준다.
강용언이 솔 옆 나이 어린 의병의 빈 그릇에 제 몫의 죽을 툭 덜어준다.

강용언 먹어라. 아직 클 놈이.

강용언의 시선이 재보에게 닿는다.

강용언 염 포수라 했소? 총질 좀 하간?
염재보 입에 풀칠할 만치는 췌소
강용언 그럼 우리보단 낫갔구만. 우린 관동서 여까지 기내려오는 동안 총알보다
 밥알 구하는 게 더 힘들었시오

강용언이 규홍을 본다.

강용언 그리구... 이쪽이 개홍이? 왜놈 일곱을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는 아새끼가?

규홍이 죽을 삼키며 덤덤하게 말한다.

안규홍 둘이어라.
강용언 뭐이라니?
안규홍 두 놈이었당게요.

잠깐의 정적.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고, 강용언도 호탕하게 웃는다.

강용언 소문이 저 우에 관동까지 기올라갈 때쯤이면 아주 스무 놈은 되겠구만 기래!

주변에 다시 웃음. 강용언이 규홍 맞은편에 털썩 앉는다.

강용언 갈 데 없으믄 붙어 있어두 일없소. 밥 한 사발은 노나 먹을 수 있다.

안규홍 (가볍게 목례하며) 꿈짜로 목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게요.

 일거리 있으믄 맘껏 부리쇼.

강용언의 시선이 규홍의 넓은 어깨와 굳은 손에 잠시 머문다.

강용언 일? 일이야 발에 치이도록 많다.

관회가 규홍 옆에 붙는다.

이관회 (작게) 됐네.

규홍은 그런 시선도 모르고 사발에 남은 죽을 긁어먹는다.

바람에 천막이 펄럭이고, 호수가 일렁인다.

S#15. 보성 호숫가, 강용언 임시거점 / 밤

해가 넘어간다.

호숫가 옆 임시거점에 어둠이 내려앉고, 모닥불이 하나둘 밝혀진다.

타닥, 타닥—

장작이 빨갛게 타들어간다.

큰 무쇠솥에서는 조금 전의 묶은 죽 대신 닭 두 마리와 감자를 넣은 국물이 펄펄 끓고 있다.

규홍과 관회, 재보를 비롯한 의병들이 솥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

관회가 닭다리 하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뜬다.

이관회 오메... 이것이 시방 뭘 일이라.

사내들이 뜨거운 닭고기를 뜯어 허겁지겁 먹는다. 저만치 모닥불가.

강용언과 복만, 의병 둘이 둘러앉아 있다. 규홍이 닭고기를 뜯다 말고 강용언을 본다.

안규홍 아니, 대장님.

 대접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 귀한 것을...

강용언이 곰방대를 물고 손을 휘휘 젓는다.

강용언 일없소, 일없어!
생사를 같이할 동무들이 제 발루 굴러들어왔는데 이만치는 대접해야디.

모닥불 옆의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강용언 배통 꺼지지 않게 단단히들 쳐먹어 두라우!
앞으로 같이 피 흘릴 일이 싸고 썩으니 기래!

이관회가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닭다리를 번쩍 든다.

이관회 예이, 대장님! 뭣이든 시켜만 주쇼잉!

술 주변에서 웃음이 터진다. 강용언도 호탕하게 웃는다.
강용언이 복만과 함께 대장 막사 쪽으로 걸어간다.
모닥불 너머로 멀어지는 강용언의 듩직한 뒷모습.
규홍이 먹던 것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본다.
관회가 슬그머니 규홍의 사발에 남은 닭고기 한 점을 집는다.
규홍이 핵 돌아본다.

안규홍 야. 그거 내 거여.

관회는 이미 한입 가득 넣었다.

이관회 니 거가 어딴여. 닭고기에 이름 써놨냐?

안규홍 니 아까 두 그릇 쳐먹었잖여.

이관회 그래서 지금 세 그릇째여.

규홍이 기가 막혀 관회를 본다.

안규홍 내가 니를 여태 안 죽이고 산 게 용허다.

이관회 나 없으면 심심해서 어쩔라고.

규홍이 피식 웃는다.

안규홍 쳐먹어라, 쳐먹어. 그 입이라도 막히게.

주변에서 웃음이 터진다.
관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한 손갈 뜯는다.

S#16. 민가 마당 / 낮

어느 집,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백성들. 이곳저곳에서 약탈을 하듯 물건들을 빼앗는 사람들.
다름아닌 의병들의 모습이다.

닭장에서 닭을 꺼내 자루에 담는 의병. 쓸만한 은비녀를 주머니에 몰래넣는 의병.

의병 둘이 광 안에서 작고 단단히 묶인 씨나락 자루를 끌어내고 있다.

늪은 노파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 자루를 붙잡으며 통곡한다.

노파1 아이고, 그것만은 안 되오! 씨나락이오!
 내년에 뿌릴 종자요!

의병1이 거칠게 노파를 뿌리치고, 노파가 내동댕이 쳐진다.

노파1 아이고. 이놈들아! 그건 안된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의병1 의병들이 굶고 있는데! 저리 비키시오!

그 앞을 규홍이 성큼 막아선다.

규홍이 씨나락 자루를 짚신 발로 짹 밟아 누른다.

안규홍 다른 건 몰라도... 씨나락은 안 되겠소.

의병1 뭐? 이놈이 실성을 했나? 대장의 명이다. 군율이라고. 군율!
 씩 비키거라.

의병1 규홍을 밀어버리고, 찔자루를 가져가려한다.

규홍이 놈을 밀쳐 넘어뜨린다.

다시 씨나락 앞을 막는다.

안규홍 (의병을 똑바로 쏘아보며)
 그래서 요것을 먹어볼든 저 사람들은 내년에 뭇을 묵고 살란 말이여.
 응? 느그들이 왜놈 새끼들허고 다르게 뭇여

퍽!

규홍의 머리가 핵 꺾인다.

무릎이 꺾이며 흙바닥에 쓰러진다.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씨나락 자루가 멀어진다.

S#17. 보성 호숫가, 강용언 임시거점 / 오후

기울어진 햇빛이 호숫가 자갈밭을 붉게 물들인다.

자갈밭 너머 잿빛 호수 위로 해가 내려앉고 있다.

호숫가옆 공터. 의병들과 규홍 일행이 숨을 죽인 채 둘러서 있다.

그 한가운데, 민가에서 가져온 씨나락 자루 두 개가 놓여 있다.

머리의 피를 닦아낸 규홍이 강용언 앞에 묵묵히 서 있다.

곁에 선 복만의 표정도 굳어 있다. 강용언이 씨나락 자루를 톡짓한다.

강용언 씨나락을 가로막아 나섰다면서 기래?

안규홍 그건 손대면 절단 나는 곡식이요.

강용언이 헛웃음을 흘린다.

강용언 내 씨나락까지 걷으라 시켰으면 걷는 거이다. 여서 누가 대장질 하간?

안규홍 (담담하게) 대장은 당신이지요.

강용언 근데 군율을 어겨 처먹어?!

안규홍 대장이라 해도 백성들 씨나락꺼정 털어도 된다는 법은 세상 천지에 없소.

공터가 조용해진다.

강용언이 규홍의 코앞까지 다가선다.

강용언 우리 식솔들이 굶어 뒤져 판이 깨지믄, 네 종간나가 책임지겠니?

안규홍 예. 내가 딴 디 가서 어치케든 구해볼랍니다.

강용언 못 구해오믄?

안규홍 그때 가서 굶더라도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게요.

뒤쪽에 선 의병 하나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옆의 동료가 강용언의 눈치를 본다.

강용언이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다.

강용언 주둥아리는 번지르르하구만. 그럼 네놈이 대장 노릇 하디 왜?

안규홍 싫소.

강용언이 멈칫한다.

강용언 ...뭐이라니?

안규홍 대장 헐 생각 눈곱만치도 없소.

 근디 먹을 거 없다고 남의 집 씨나락까지 털어가면 안 되제.

규홍이 민가에서 은비녀를 훔쳤던 의병 앞으로 간다.

손을 내민다.

안규홍 내놓으쇼.

의병이 머뭇거리다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건넨다.

규홍이 비녀를 들어 보인다.

안규홍 뺏지도 말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없으면 가서 사정을 하든가, 땀 흘려 일을 해주든가 협시다!

잠시.

안규홍 그래도 정 안 되면 우리가 덜 묵읍시다.

강용언이 규홍을 노려본다. 의병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간다.

강용언 기래? 양반 핏줄 이라카드만,고고한 척 하고 싶은기야?
 내 좀 알아봤다,큰 양반집 서자였는데, 쫓겨났다고....

꼭 참는 규홍

강용언 밥상 못 차려오면 네놈 모가지부터 비틀어 놓을 테니 기리 알라우!

씨나락 자루를 툭 찬다.

강용언 내일까지다. 못 처먹이면 그땐 그 주둥이 콧 닥치고 있거라.

강용언이 핵 돌아서 대장 막사로 들어간다.

공터에 남겨진 씨나락 두 자루. 규홍이 한동안 그것을 바라본다.
말없이 지게 끈을 고쳐 맨다.

S#18. 보성 호숫가 강용언 임시거점 / 늦은 오후녘

붉게 물든 호수 임시거점.

빈 솥 주변에서 굶주림에 지쳐 널브러져 있던 의병들.

그 옆에는 아직 손도 안 댄 묶인 씨나락 자루 두 개.

대장 막사 앞, 강용언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으로 공터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때, 대나무 숲 사이로 지게를 진 규홍과 일행이 걸어 들어온다.

쿵! 쿵!

보리쌀 자루와 감자 망태가 가마솥 앞 자갈밭에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의병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몰려든다.

의병1 (자루를 만져보며) ...보리쌀이네?

의병2 감자도 있구만~ 이걸 다 어디서 났소?

관희가 땀을 흠치며 으쓱한다.

이관희 어디서 나긴, 흠쳤쓰까봐? 주막 돌담 쌓고 장작 패주고 받아온 거제.
 아조 힘들어 죽어본줄 알았네

의병 하나가 규홍의 흠투성이 손을 본다.

의병1 이걸 다 일해서?
안규홍 일한 만큼 받아오면 되는 거여.
 뺏지 말고.

의병들의 환호 속에 규홍이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인다.

안규홍 술 올리쇼. 밥 먹읍시다.

취사 사내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아궁이로 내달린다.
곡식을 씻고 장작을 넣는 사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그 활기와 웃음소리 너머－
대장 막사 앞, 팔짱을 낀 채 굳어 있는 강용언.
아무도 강용언에게 묻거나 기대지 않는다.
타닥- 화르륵!
아궁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강용언의 굳은 얼굴을 붉게 비춘다.
그의 시선이 불길 너머,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온전히 남아 있는 씨나락 두 자루에 무겁게 꽂힌다.

S#19. 보성 호숫가, 강용언 임시거점 / 밤

모닥불 주변.
배를 채운 의병들이 규홍옆에 모여 웃고 떠들고 있다
관희도 옆에서 감자를 씹으며 신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쨍그랑－!
대장 막사에서 술병 깨지는 소리. 강용언이 비틀거리며 나온다.
눈이 벌겋다.

강용언 종간나 아새끼들 배가 불러 터질라 카는구만.

사내들이 눈치를 본다. 강용언이 규홍 앞으로 다가온다.

강용언 머슴질이나 하던 종간나가 밥 한 끼 구해왔다고
 대장자리까지 넘보는 구만 기래

규홍은 지게를 묶던 손을 멈추지 않는다.

안규홍 땀 흘려 일하고 목자고 헨 것뿐이오
강용언 우린 의병이야!
 나라 찾갔다고 목숨 내놓은 놈들이란 말이다!
 남의 집 담벼락이나 고쳐주고 밥이나 빌어 처먹는 짓거리가 그게 의병이간?

규홍이 고개를 든다.

안규홍 백성들 거 털어서 배때지 채우는 것은 도적놈이제,
 그것이 어치케 의병이오.

강용언의 얼굴이 굳는다.
챙-! 환도를 뽑는다.

복만 대장!

강용언이 칼을 휘두른다.
규홍이 몸을 피한다. 칼날이 지게를 찌른다.
쾅!
강용언이 그대로 규홍에게 달려든다. 둘이 거칠게 엉킨다.
퍽!
강용언의 주먹에 규홍의 입술이 터진다.

강용언 이 종간나새끼, 기렇게 대장이 해쳐먹고 싶간?!

안규홍 (이를 악물며) 싫다 안 하요!

규홍의 주먹이 강용언의 턱에 꽂힌다.
퍽-!
강용언이 비틀거리다 한쪽 무릎을 꿇는다.
규홍도 거친 숨을 몰아쉰다. 흙바닥에 떨어진 강용언의 환도.
규홍이 본다. 집지 않는다. 붓짐을 들어 어깨에 멘다.

안규홍 가자.

규홍이 돌아선다. 관회와 재보가 바로 따른다.
의병 둘이 서로를 바라본다. 하나가 짐을 든다. 또 하나가 규홍의 뒤를 따른다.
강용언이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본다. 복만만 남아 있다.
강용언과 눈이 마주친다. 복만이 천천히 화승총을 집어 든다.
강용언의 눈빛이 흔들린다. 복만은 말없이 돌아선다. 규홍 일행을 따라간다.

S#20. 박제현 집 사랑채 / 밤

어두운 사랑채.
박제현, 박진성, 박상현을 비롯한 지역 양반 둘이 둘러앉아 있다.
평소와 달리 술상도 없다.
마당 너머 곡간 문에는 붉은 압류 봉인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다.

양반1 어제는 제 딸아이가 일진회 놈들에게 봉변을 당했소.
따지리 갔다가... 내가 되레 욕만 먹었소.
양반2 우리 집은 논도 가져갔소..
 갓다 붙이는 대로 죄가 되니 어찌 살란 말이오.

박진성이 굳은 얼굴로 듣는다.

박진성 이대로 있다가는 전부 다 빼앗기겠소.
박상현 그렇다고 들이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박진성이 성현을 본다.

박성현 관천하고 척을 저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살릴 것은 살려놓고 봐야지요
박진성 자넨 언제까지 그 소릴 할 셈인가.

잠시.

양반2 산에 의병들이 모인다던데.

박상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다.

양반1 강용언 밑에 잇던 자들이던가?
박진성 강용언이는 이미 흩어졌다던데

양반2가 목소리를 낮춘다.

양반2 요즘 뭘 머슴놈이 사람을 모은다 하오.

잠시 정적.

박상현이 헛웃음을 흘린다.

박상현 개흥이 말입니까?

누구도 웃지 않는다. 박상현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진다.

박상현 나라가 어지럽다고...위아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제현이 천천히 동생을 본다

박제현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박상현 안 중요합니까?

머슴이 사람을 거느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누가 누구 거느립니까.

사랑채가 조용해진다. 박제현이 상현을 오래 본다.

박제현 너는 왜놈보다 그게 더 겁나 보이는구나

상현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박제현은 시선을 열린 방문 너머 어두운 마당 구석을 바라본다.

규홍이 늘 지계를 세워두던 자리. 지계가 없다.

박진성의 시선도 그 빈자리로 향한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다.

S#21. 산자락 외판 헛간 or 물레방앗간 / 낮

어두운 헛간.

규홍, 관희, 재보, 복만과 사내 셋이 지쳐 널브러져 있다.

규홍은 한쪽 눈이 툭툭 붓고 입술까지 터져 얼굴 꼴이 말이 아니다.

문이 열리고 보자기를 든 달래가 들어온다.

달래 개홍이 오라버니-

규홍을 보자 그대로 멈춘다.

달래 아이고야... 얼굴이 왜 이래?

달래가 냉큼 다가와 규홍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달래 누가. 누가 요래부렸어?

안규홍 아무것도 아녀.

달래가 부은 눈가를 만지려 하자-

안규홍 아따, 쓰리다!

달래 쓰린 줄은 아네.

달래가 보자기를 핵 풀어놓는다. 주먹밥이 나오자 사내들이 달려든다.

달래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뺏어간대?!

이관희 오메, 살았다.

입안 가득 주먹밥을 문 규홍.

안규홍 요즘은 뺏어간다며.

달래의 표정이 살짝 바뀐다.

달래 동네가 난리여. 왜놈보다 배상도 따라댕기는 일진회 놈들이 더 독해.
어제는 그중 한 놈이 최 서방네 광을 짝 털어갔당께

규홍이 달래를 본다.

달래 내년엔 심을 씨나락까지. 즈그집 곳간에 쌓아놔더딘디

규홍의 씹던 입이 멎는다.

안규홍 ...씨나락을?

달래 한 톨도 안 남기고 짝 쓸어가부렀데.

규홍이 손에 든 주먹밥을 마저 삼킨다. 일어난다.

이관회 왜.

안규홍 그건 찾아와야제.

이관회 어디서?

안규홍 가져간 놈 곳간에서.

관회가 얼른 자기 주먹밥을 입에 옥여넣고 따라 일어난다.

재보와 복만도 일어난다.

달래가 기가 막혀 규홍을 본다.

달래 오자마자 또 가?

규홍이 입안 가득 씹으며 끄덕인다.

달래가 한숨을 푹 쉬며 부은 규홍 얼굴을 한번 본다.

달래 ...얼굴 반대쪽은 남겨 갖고 와.

규홍이 피식 웃는다.

S#22. 배상도 꼬나플 집 곳간 / 밤

퍽-!

무쇠 자물쇠가 둔탁하게 부서져 떨어진다.

복면을 두른 규홍, 관회, 재보, 복만이 곳간 안으로 스며든다.

관솔불 아래- 쌀가마니와 씨나락 자루, 은비녀와 유기그릇이 수북하다.

규홍이 자루 먹글씨를 확인한다. "최 서방 종자", "이 씨 법씨".

안규홍 (낮게) 씨나락부터 챙겨.

광!

곳간 문이 열리며 몽둥이를 든 앞잡이가 뛰어든다.

앞잡이 어떤 놈들이여-

몽둥이가 관회를 향해 떨어지고, 관회가 그대로 밀려 쌀가마니 더미 쪽으로 넘어진다.
동시에- 재보의 총구가 앞잡이의 관자놀이에 닿는다.

앞잡이 (얼어붙어) 사, 살려주쇼! 관에서 시켜서 한 일ियो!
나도 먹고살라고 그런 거요!

규홍이 씨나락 자루를 짚어지며 다가선다. 복면 위 눈빛이 서늘하다.

안규홍 왜놈 앞잡이 노릇 하는 거야 니 목숨줄이니 냅두겠는디,
그 종자자루까지 건들면- 그건 니 목줄이 아니라
동네 사람 명줄을 끊는 거여.

앞잡이가 흙바닥에 이마를 박는다.

S#23. 마을 / 밤

어두운 초가집 골목.

복면을 쓴 규홍 일행이 조용히 움직인다.

규홍이 한 집 사립문 앞에 멈춘다. 메고 있던 씨나락 자루를 내려놓는다.
쿵.

곧바로 다시 걷는다. 조금 뒤.

재보가 다른 집 뒷마루 앞에 쌀자루 하나를 내려놓는다.

일행은 곧바로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관회가 배를 문지른다.

이관회 야, 개흥아.
우리도 굶고 땀기는데... 쪼까만 빼 묵으면 안 되냐?

앞서 걷던 규홍.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안규홍 우리 것 아니여.

관회가 입을 삐죽이며 붓짐을 고쳐 멘다. 일행이 마을을 벗어난다.

S#24. 복내 장터 국밥집 / 낮

가마솥에서 허연 김이 솟는 복적이는 국밥집.
장사꾼, 짙신 장수, 나무꾼들이 국밥을 말아먹는다.
구석 자리.
거친 옷차림의 사내, 오주일이 묵묵히 국밥을 뜬다.
얇은 옷깃에는 무언가 뜯어낸 듯한 흔적이 남아 있다.
옆 평상. 대장장이와 백정, 나무꾼이 탁주잔을 기울인다.

대장장이 들었는가? 어젯밤에도 앞잡이 놈 곳간 하나 털렸다네.
백정 누가?
대장장이 밤마다 복면 쓰고 나타난다더만. 근디 지들이 먹는 게 아니여.
 뺏긴 집에 고대로 갖다 놓는다. 최 서방네 씨나락도 돌아왔고.
나무꾼 그... 강용언 밑에 있던 개흥이라던디?
백정 (헛웃음) 박제현네 머슴 개흥이? 머슴이 의병 대장질을 혀?
나무꾼 대장이든 머슴이든 뺏긴 거 찾아주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산으로 사람도 붙는다더라.

오주일의 손가락이 멈춘다. 천천히 고개를 든다.

S#25. 보성 주재소 토미이시 집무실 / 밤

정갈한 책상.
징세 장부, 주판, 붉은 인주.
토미이시가 장부를 넘긴다.
맞은편에 배상도가 서 있다.

배상도 (서툰일본어) 어젯밤에 저희쪽 곳간 하나가 털렸습니다.
 건어놓은 곡식을 다시 마을에 돌려놔드립니다.

토미이시는 시선을 들지 않는다.

토미이시 (일본어) 누구지?
배상도 (일본어) 복면을 써서 얼굴을 보진 못했는데 아마 산에 있는 놈들 같습니다.

토미이시가 장부의 숫자 하나를 붉은 선으로 긋는다.

토미이시 (일본어) 그럼 더 건어

배상도가 잠깐 토미이시를 본다.

배상도 (조심스럽게, 일본어) 더 건으면... 사람들이 더 산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토미이시가 눈을 든다.

토미이시 (일본어) 붙으라 그래.
사람이 모이면... 안에서 무너뜨릴 놈도 생겨

배상도의 표정이 굳는다.
토미이시는 다시 장부를 본다.

토미이시 (일본어) 다음 달 징수량, 스무 섬 올려.
배상도 (일본어, 놀라며) ...예.

광.
토미이시가 장부에 도장을 찍는다.

S#26. 파청 산채 / 낮

산채 공터.
관회, 재보, 복만을 비롯한 기존 사내들이 한쪽에 서 있다.
맞은편에는 산 아래에서 새로 올라온 사내들 대여섯.
붓짐이며 낡은 농기구를 들고 있다. 서로 어색하게 마주 본다.
새로 온 사내 하나가 먼저 입을 연다.

사내1 왜놈들 하는 짓거리를 더는 못 보겠소.
씨나락 찾아다 돌려줬다는 얘기도 들었고.

옆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사내2 내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왔소.

잠시 정적.
규홍이 사람들을 한번 훑어본다.

안규홍 뭘 할 줄 아시오?

앞에 선 사내가 손을 들어 보인다. 굳은살 박인 손.

대장장이 나는 대장장이였소. 쇠 만지는 건 자신 있소.
목수 나는 나무를 좀 다루오.

그다음 백정.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다.

백정이 코를 한번 훌쩍인다.

백정 내가... 큼...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잠시.

백정 없으면... 큼... 나 소 잡는 놈이었소.

몇몇이 슬쩍 백정을 바라본다.

규홍은 아무렇지도 않다.

안규홍 소도 잡는디 왜놈이라고 못 잡겠소.

순간- 사내들 사이에서 작게 웃음이 터진다.

백정도 멋쩍게 웃는다. 굳어 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간다.

그때 뒤쪽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온다.

오주일 대한제국군 군인이었소.

주변이 조용해진다.

관회 군인?

사내들이 오주일을 새삼 훑어본다. 규홍도 눈빛이 달라진다.

안규홍 그라믄 잘 왔소. 우린 군인이 한 놈도 없응게.

관회가 규홍을 돌아본다.

이관회 야. 나는?

안규홍 너는 나랑 같은 머슴

작게 웃음이 터진다.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맨 뒤에 서 있던 임정현이 슬쩍 손을 든다.

임정현 나는 글밖에 모르오.

안규홍 잘됐네. 여그 글 아는 놈 한나도 없소.

S#27. 파청 산채 / 낮 - 몽타주

1. 오주일이 나뭇가지를 지휘봉처럼 들고 사내들 앞에 선다.

오주일 좌향좌.

사내들이 엉거주춤 돈다. 절반은 왼쪽, 절반은 오른쪽.

대장장이 ...좌가 어디여?

백정 이짜 아니여?...쿵..

대장장이 그건 니 좌제!

관희가 규홍이 부딪칠 뻔한다.

이관희 사람마다 좌가 다르냐!

오주일, 이마를 짚는다.

2. 숲길. 오주일의 손이 앞으로 나간다.

한 무리가 뛰쳐나간다. 관희도 냇다 따라간다.

오주일 관희! 왜 움직였소?

이관희 쟈들이 가길래.

오주일 남 간다고 따라가면 자기 자리가 빕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쿵!

재보가 일부러 돌을 굴린다.

사내들이 화들짝 그쪽으로 움직이려 한다.

오주일 멈춰!

사내들이 엉거주춤 선다.

오주일 눈은 가도 발은 가지 마시오. 가야 할 사람이 갑니다.

규홍이 그 말을 듣는다.

3. 나무 그늘.

안규홍 사람이 진짜 위험해도 안 가요?

오주일 가야 할 사람이 갑니다.

안규홍 누가?

오주일 미리 정한 사람ियो.

규홍이 관희와 재보를 번갈아 본다.

안규홍 그라운 관회는 움직이는 데 놓고,
 재보 형씨는 기다리는 데 놓읍시다.
이관회 내가 왜.
안규홍 니가 기다리겠냐?

관회, 입 다문다.

4. 다시 훈련.
신호. 이번에는 한 무리만 움직인다.
관회가 반 걸음 나갔다가 멈춘다.
다른 사내들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 오주일이 본다.

오주일 ...쓸 만하네.

사내들이 슬쩍 웃는다.

5. 훈련이 끝나고 가마솔 앞으로 몰려드는 사내들.
솔뚜껑이 열린다.
멀건 죽. 백정이 자기 사발을 내려다본다.

백정 이거... 국물이여...콩..죽이여.

웃음이 없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안규홍과 임정현, 이관회
임정현의 장부. 손가락이 숫자를 짚는다.

임정현 남은 쌀로... 사흘.
이관회 사흘?

규홍이 멀건 죽을 먹는 사내들을 바라본다.

안규홍 ...싸우는 것보다 먹이는 게 더 큰 일이네.

S#28. 박제현 집 사랑채 / 밤

사랑채.
박제현, 박진성, 박상현. 지역 양반 몇이 함께 앉아 있다.
마당아래. 규홍이 서 있다. 몇 걸음 뒤 관회.
여러 양반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린다. 규홍이 허리를 조금 숙인다.

안규홍 그간 잘 계셨습니까 나리

박제현이 규홍을 본다.

안규홍 사람이 조까 늘었습니다. 쌀 몇 섬만 빌려주십쇼. 꼭 갚겠습니다.

박진성이 헛웃음을 친다.

박진성 니가 지금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냐?

안규홍 거느리는 건 아니고... 같이 있는 겁니다.

박진성 허. 머슴 놈이 사람 몇 붙었다고 대장 행세를 하더니,
이제 양반들한테 군량까지 내놓으라?

안규홍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겁니다.

박상현이 규홍을 뵈히 본다.

박상현 쌀이 한번 산으로 올라가면 이 집도 의병과 한패가 되는 거다.
규홍은 박제현을 본다. 박제현도 규홍을 보지만 대답하지 못한다.

안규홍 왜놈들한테 뺏기는 건 괜찮고요?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진다.

안규홍 전에 다들 그러셨잖습니까. 더는 못 견디겠다고.

양반들의 표정이 굳는다.

안규홍 근디 막상 싸워보겠다는 놈들이 생기니까...
(잠시) 내가 머슴이라 영 못 믿겠습니까?

박제현의 얼굴에 미세한 동요. 박상현이 먼저 입을 연다

박상현 신분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느냐?

규홍이 본다.

박상현 니가 사람을 모았다고 해서 세상 이치까지 바뀌는 건 아니다.

안규홍 세상 이치같은건 잘 모르겠고요..지금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박상현의 입이 멎는다. 규홍은 다시 박제현을 본다.

박제현의 눈앞에 어릴때부터 이 집 마당을 뛰어다니던 머슴.

지금은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자기 앞에 서 있다.

박제현이 입을 열려다가 곳간 쪽을 본다.

붉은 압류 봉인지. 가족들. 동생들. 다시 규홍
끝내 말하지 못한다. 규홍이 눈치를 챈다.

안규홍 ...됐습니다.

고개를 숙인다.

안규홍 괜한 부탁 드렸습니다.

규홍이 마당을 가로질러 나간다. 관희가 말없이 규홍의 뒤를 따른다.
박제현의 시선이 오래 따라간다. 박진성은 여전히 화가 가지지 않았고,
박상현은 굳은 얼굴로 박제현을 본다.

박상현 오늘은 쌀을 빌려달라 합니다. 내일은 또 뭘 달라 할지 누가 압니까?

박진성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상현 머슴이 사람들 거느리고, 양반이 그 밥을 대기 시작하면...

말끝을 흐린다. 박제현이 차갑게 본다.

박제현 그리 되면?

박상현 ... 좋을 것 없다는 말입니다.

박제현은 말없이 마당을 본다. 규홍이 서 있던 자리

S#29. 파청 산채 / 낮

달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온다.

달래 오라버니!

훈련하던 규홍과 사내들이 돌아본다.

안규홍 또 뭘 일인데.

달래 산에서 잡힌 의병 셋이요.

내일 복내장 지나 광주로 끌고 간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다.

안규홍 몇이나 붙었어?

달래 모르겠소. 총 든 놈들이 여럿이었소.

오주일이 나뭇가지를 내려놓는다.

오주일 헌병이면 한번 틀어지면 바로 총부터 나옵니다.

안규홍 나도 알아.

 근디 저 셋 그냥 보내면 죽는 거 아니오.

복만 그라믄?

안규홍 셋만 빼냅시다.

오주일과 복만, 의병들이 규홍을 본다.

안규홍 헌병 잡으러 가는 거 아니오. 나라를 위해 싸우는 백성 구하러 가는 거제.

오주일,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S#30. 복내장터 / 낮

악자지껄한 장날.

국밥집 연기가 피어오르고 장꾼과 지게꾼들이 뒤엉킨다.

그 사이에 보성의진 사내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흩어져 있다.

규홍은 짐꾼 차림으로 지계를 지고 오간다.

관회는 용기전 앞에서 향아리를 만지작거리고, 재보는 짚명석을 무릎에 올린 채 앉아 있다.
명석 안에는 화승총.

오주일은 국밥집 모퉁이에서 장터 입구를 지켜본다.

관회가 불안한 듯 규홍 쪽을 힐끗 본다.

오주일이 손가락으로 작게 경고한다.

관회가 얼른 고개를 돌려 향아리를 살핀다.

저만치 군화 소리. 장터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든다.

일본 헌병 셋이 들어온다. 그 사이로 포승줄에 묶인 의병 포로 셋.

장꾼들이 슬그머니 길을 비킨다. 관회가 몸을 굳힌다.

재보의 손이 명석 아래 화승총을 움켜쥐다. 오주일은 움직이지 않는다.

헌병 하나가 포로를 거칠게 밀친다. 포로 하나가 넘어지자 군홃발이 날아든다.

관회가 저도 모르게 한 발 나가려 한다. 오주일의 손이 멈춘다.

관회가 이를 악물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훈련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동작 그대로다.

그때- 헌병 하나가 재보를 발견한다. 재보 무릎 위의 길쭉한 명석을 노려본다.

헌병이 천천히 다가온다. 재보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다른 헌병은 관회 쪽을 의심스레 바라본다. 순간 장터 양쪽의 긴장이 팽팽해진다.
그때-

쿵!

규홍이 지게를 내려놓는다. 헌병들이 돌아본다.

규홍이 장터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온다.

안규홍 어이, 총 든 양반들..

헌병 (일본어) 넌 뭐야? 머슴같은 놈이

헌병들이 규홍을 노려본다. 규홍이 피식 웃는다.

안규홍 그들 보성서 주먹자랑하지 마란 말도 못 들어봤냐?

잉! 그게 나여!

퍽-

규홍의 주먹이 헌병의 턱에 꽂힌다. 헌병이 웅기 좌판으로 나가떨어진다. 와장창!

남은 헌병 둘이 소총을 움켜쥐는다. 동시에- 오주일의 손이 떨어진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움직인다.

헌병 하나가 소총을 겨누려는 순간 규홍이 총열을 위로 쳐올린다.

탕-! 총성이 하늘을 찢는다. 장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린다.

헌병이 규홍을 밀쳐내고 총검을 겨눈다. 규홍이 몸을 틀어 피하며 총신을 낚아챈다.
둘이 거칠게 뒤엉킨다.

헌병이 총검을 다시 밀어붙이는 순간- 규홍이 총신을 비틀어 빼앗는다.

그대로 총검을 헌병의 가슴에 밀어 넣는다.

폭-

헌병의 몸이 멎는다. 규홍도 순간 굳어버린다.

재보가 멍석을 다른 헌병의 얼굴에 댄다 밀어붙인다.

헌병이 휘청이는 순간 관회가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덩군다.

오주일이 마지막 헌병의 손목을 꺾는다. 의병들이 달라붙는다.

짧고 거친 육박전.

한 명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남은 헌병 둘도 흠바닥에 제압된다.

규홍의 시선이 죽은 헌병에게 잠시 머문다.

이관회 개홍아!

규홍이 정신을 차린다

안규홍 사람부터!

관회가 낮으로 포승줄을 끊는다.

이관회 하나!

다른 의병이 두 번째 포로의 줄을 자른다.

의병 둘!

재보가 걷지 못하는 세 번째 포로를 등에 업는다.

염재보 셋! 됐다!

오주일이 철수 신호를 보낸다.

오주일 빠져!

사내들이 포로 셋을 부축하고 장터 뒤 골목으로 사라진다.
쓰러진 헌병들은 그대로 둔다.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S#31. 해안 바위지대 / 오후

거친 파도 소리.
규홍 일행이 바위 뒤로 뛰어들어온다. 구해낸 포로 셋도 함께다.
사람들이 모래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쉰다.
관희가 바닥에 벌러덩 눕는다.

이관희 ...셋 맞제?

의병 하나가 포로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의병3 하나... 둘... 셋...
셋 다 있소.

여기저기서 숨 섞인 웃음이 터진다.
규홍이 터진 주먹의 피를 닦는다.

안규홍 다친 사람부터 봐.

사내들이 일어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건네고, 천을 찢어 상처를 묶는다.
한 의병이 포로의 상처를 살피다 규홍을 본다.

의병4 대장님, 이쪽은 괜찮습니다.

규홍이 돌아본다.

안규홍 ...뭐?
의병 대장님이요.

관희가 피식 웃는다.

이관희 왜. 싫으면 내가 할까?
안규홍 그건 더 싫고.

사내들이 웃는다. 규홍도 따라 웃는다. 뒤로 파도가 부서진다.

S#32. 보성 주재소 토미이시 집무실 / 밤

상처투성으로 선 헌병 둘과 흰 천이 덮인 시신 한 구.
벽 쪽에 굳어 선 배상도, 붓을 든 행정요원.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토미이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토미이시가 시신 앞으로 다가가 천을 걷는다.
죽은 헌병의 얼굴을 서늘하게 응시한다.

토미이시 포로는?
헌병 ...셋 모두 빼앗겼습니다.
토미이시 내가 보성에 온 뒤로 우리 헌병이 죽은 건 처음이군.

토미이시가 벼락같이 돌아서며 헌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친다!
퍽-! 헌병이 책상으로 나뒹굴자 먹살을 잡아 벽에 처박고 군화로 사정없이 짓밟는다.

토미이시 총을 들고 조센징에게 포로를 뺏기고 동료까지 죽게 해?!

거친 숨을 고르며 돌아서는 토미이시.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가라앉은 눈빛.

토미이시 누구지. 이 일을 벌인 놈.

배상도가 사색이 되어 앞으로 나선다.

배상도 박제현 집 머슴인데요... 본명은 안규홍입니다.

토미이시의 눈짓에 행정요원이 먹물을 묻혀 종이에 적는다. 安. 圭. 洪.

토미이시 사람은?
배상도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토미이시가 행정요원을 본다.

토미이시 적어. 거괴(巨魁).

붓끝이 다시 움직인다. 巨魁 安圭洪.

토미이시 떼를 지었으면 떼부터 찢어놔.
먹이는 놈, 숨겨주는 놈, 돈에 흔들릴 놈까지 전부 찾아.

배상도를 본다.

토미이시 조선인 잡는 덴 자네 같은 조선인이 제일 쓸 만하니까.
안규홍 못 잡으면 자네도 끝이야.

배상도의 얼굴이 굳는다.
토미이시의 시선이 다시-

巨魁 安圭洪.

S#33. 박제현 집 사랑채 / 밤

어두운 사랑채.
박제현이 혼자 앉아 있다.
박상현이 들어와 문을 닫는다. 목소리가 낮다.

박상현 이번엔 제대로 뒤질 모양입니다.

박제현이 본다.

박상현 개흥이 이름까지 관에 올라갔답니다.
그 머슴놈 도운 집들도 전부 살펴본다 하고요.

박제현은 대답하지 않는다.

박상현 설마... 아직도 그놈하고 얽여 있는 건 아니지요?

침묵. 상현의 얼굴이 굳는다.

박상현 관에서 물으면 모르는 일이라 하십시오.
관청 쪽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제현이 피식한다.

박제현 왜놈들하고 통하는 아우가 있으니 참 든든하구나.

박상현 비꼬지 마시오.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다 집안 지키자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박제현 나라를 빼앗겼는데... 가문은 무슨 소용이냐.
박상현 그래서요? 기어이 머슴놈 편을 들겠다는 겁니까?
박제현 머슴이면 편도 들면 안 되느냐

상현의 얼굴이 굳는다.

박상현 머슴은 머슴이고, 양반은 양반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고 그게 뒤섞여서야 되겠습니까.
지킬 것 없는 놈들이니..저희랑은 다르지요.
박제현 그렇다고 그걸 지키자고 왜놈 밑에 었드릴 셈이냐

박상현이 입을 다문다. 이내 문 쪽으로 몸을 돌린다.

박상현 말씀 조심하십시오. 듣는 귀가 많습니다.

박상현이 나간다. 문이 닫힌다. 박제현 혼자 남는다.
시선이 마당 너머 굳게 닫힌 공간 문으로 향한다.

S#34. 박제현 집 공간 / 밤

대문이 살짝 열려 있다. 관희가 익숙하게 들어선다.
마치 몇 번 와본 사람처럼 거침없다. 재보가 뒤따르다 멈춘다.

염재보 ...남의 집 털러 오는데 문이 열려 있소?
이관희 형님 원래 이런 집이여.
안규홍 뭔 원래여. 빨리 와.

공간 앞. 자물쇠도 열려 있다. 재보가 규홍을 본다.

염재보 대장. 이거 진짜 털어도 되는 거 맞소?

그때 머슴 하나가 공간 뒤에서 튀어나온다. 목청을 한껏 높인다.

머슴 도둑이야아아! 의병놈들이 공간을 툰다아아!

소리는 요란한데 습관적으로 재보가 머슴에게 총구를 겨눈다.
깜짝 놀란 규홍,관희 기겁하며 재보를 말린다.
머슴이 공간 문을 활짝 열어준다. 규홍 일행 멈칫.머슴은 급기야 누군가에게 맞기라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 땅을 구르고, 자해를 한다.
여전히 적응안되는 의병들.

머슴 아이고 힘도 세다! 못 막겠네!

쌀가마니를 직접 밀어준다.

재보가 얼떨결에 받는다.

염재보 ...내가 지금 털고 있는 거요, 도움받는 거요?

이관회 형님 말하지 마쇼. 나도 헛갈링께

다른 머슴들이 뛰어나온다. 그러면서 쌀가마니를 수레에 얹는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안방 문이 열린다. 법화댁이 나온다.

법화댁 아이고! 이것들이 우리 집을 다 털어가네!

규홍이 움찔한다. 법화댁이 자루 하나를 규홍에게 안긴다.

법화댁 이것도 가져가, 도둑놈아!

작게, 규홍의 귀에만 들리게.

법화댁 그거 말고 옆에 거. 그게 쌀이여.

관회가 웃음을 참는다. 그때 박제현이 사랑채에서 나온다.

박제현 이놈들! 내 공간을 다 털어가면 나는 뭘 먹고 살란 말이나!

규홍이 순간 진지해진다.

안규홍 ...죄송합니다.

박제현이 인상을 쓴다.

박제현 도둑놈이 왜 사과를 혀! 언능 때려라! (뒷 목을 내어준다)

안규홍 예, 나리. 용서하십시오.

(얼떨결에 들고 있던 칼 손잡이로 제현의 뒷목을 때린다 기절하여 쓰러지는 제현을 받는 규홍.)

이관회 아, 살살때려야제! 오메, 절단 나쁜거 아니냐?

안규홍 아따, 요 각이 안나와가꼬...

이관회 눅혀놓고 언능와야!

관회가 규홍 등을 떠민다.

이관회 가자, 이 멍청아.

셋이 수레를 끌고 달아난다. 머슴들이 뒤에서 느릿느릿 쫓는다. 걸음이 일부러 굼뜨다.

머슴들 잡아라아아! 도둑이야아아!

재보가 뛰며 뒤를 돌아본다.

염재보 저 사람들... 우리 잡을 생각 없는 거 같은디?

이관회 그러니까 얼른 갑시다!

수레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마당이 조용해진다.

잠시 뒤 쓰러져 있던 박제현의 손가락이 꿈틀한다.

머슴 하나가 슬쩍 다가가 제현을 일으켜 세운다.

박제현이 정신을 차리며 뒷목을 움켜쥐는다.

박제현 아이고야... 이놈이 진짜로 때렸네.

머슴들이 웃음을 참는다. 박제현이 인상을 찌푸린 채 사라진 수레 쪽을 바라본다.

박제현 많이 가져갔냐?

머슴 시키신 만큼 가져갔습니다.

박제현 됐다. 문 닫아라.

뒷목을 주무르며 박제현이 안채 쪽으로 걸어간다.

S#35. 마을길 / 밤

규홍과 관회, 재보가 쌀 수레를 끌고 간다. 숨을 몰아쉰다.

염재보 아따... 강 들고 나오는 것도 힘드네.

이관회 그란께요. 맨날 뺏다가 주는거 받아올라니까 이상허네.

길 중앙을 가로 막고 있는 마을사람들. 규홍 일행을 노려보다 각자 흩어진다.

영문을 몰라 긴장하며 전진하는 규홍일행.

끼익- 어느 집 사립문이 열린다. 노인이 말없이 보리자루 하나를 수레 위에 올린다.

안규홍 어르신, 이건-

노인이 손을 내젓고 들어가 버린다.

조금 더 간다. 아낙이 감자 바구니를 엮는다. 다른 집에서 짚신 몇 켤레, 옥수수.

문들이 하나씩 열린다. 아무도 거창한 말을 하지 않는다. 수레 위로 살림이 하나씩 쌓인다. 재보가 뒤를 돌아본다. 아까보다 훨씬 높아진 짐.

염재보 ...이러다 진짜 도둑 되겠소.

관희가 피식한다. 규홍은 웃지 못한다. 수레 위에 쌓인 것들을 바라본다.
잠깐. 다시 수레를 끈다. 관희와 재보가 붙는다.
세 사람이 무거워진 수레를 함께 끌고 어둠 속으로 간다.

골목 끝. 박진성과 박상현이 수레를 본다.

박진성 ...형님이 결국.

상현은 닫히는 박제현 집 대문을 본다.

S#36. 파청 산채 / 밤

산길 아래.
규홍, 관희, 재보가 무거워진 수레를 끌고 올라온다.

이관희(O.S.) 야야! 사람 좀 나와봐라!

산채의 사내들이 우르르 뛰어나온다.
수레 위. 쌀가마니에 보리, 감자, 짚신까지 수북하다.

복만 대장, 이걸 안쪽에 들여놓소?

규홍이 수레를 붙잡은 채 바로 대답한다.

안규홍 어. 쌀은 안쪽. 감자는 그늘에 두고.

복만이 가마니를 둘러메고 간다.
관희가 규홍을 뵈히 본다.

안규홍 왜.
이관희 너 이제 대장 소리 바로 알아듣는다?

규홍이 멈칫한다.

안규홍 사람이 물어보잖여.

관희가 피식 웃는다.

규홍이 감자 하나를 집에 관회에게 던진다.

안규홍 시끄럽고 날러.

관회가 감자를 받아낸다.

이관회 예, 대장님.

안규홍 아따, 저 새끼가.

사람들의 웃음. 규홍도 쌀가마니 하나를 둘러멘다.

한쪽. 임정현이 들어온 군량을 빠르게 세어본다.

임정현 아껴 먹으면... 닻새는 버티겠습니다.

규홍이 고개를 끄덕인다.

안규홍 닻새면 뭐라도 생기겠지.

옆에서 듣던 오주일.

오주일 그 ‘뭐라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안규홍 아따, 좋은 날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쇼.

작은 웃음.

조금 떨어진 곳.

복만이 쌀가마니를 내려놓다 말고 규홍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본다.

규홍은 그런 시선을 모른 채 다시 수레로 향한다.

S#37. 복내장터 / 낮

복만이 소금과 약재를 사 들고 장터를 지난다.

한쪽 벽.

안규홍의 이름이 적힌 방.

사람 몇이 구경하고 있다. 복만도 멈춘다. 현상금 액수를 본다.

장꾼1 머슴 하나 목에 돈이 저렇게 붙었어?

장꾼2 머슴이 아니라 의병 대장이라잖여.

복만의 시선이 안규홍이라는 이름에 머문다.

그때 뒤에서-

배상도 같이 다니는 놈들은 이름도 없드만.

복만이 돌아본다. 처음 보는 배상도.
배상도가 방을 바라본다.

배상도 안 그렇소?

복만이 경계한다.

복만 누구시오.
배상도 그건 알 거 없고.

복만이 더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린다. 산채로 향하려는 순간

배상도 내일 왜군 군량이 새재로 넘어간다던디.

복만의 걸음이 멎는다.
배상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지나친다.

복만 잠깐.

배상도가 돌아본다.

복만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배상도 내가 자네한테 말했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진다.

배상도 혼잣말했제.

다시 돌아서는 배상도. 복만이 결국 입을 연다.

복만 호위는?

배상도의 걸음이 멈춘다. 천천히 고개만 돌려 복만을 본다. 복만이 미끼를 문 걸 확인한 눈이다.

배상도 많지 않다더군.

배상도가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복만이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벽보를 본다.
벽보 한가운데 적힌 이름. ‘안규홍.’
그 아래 찍힌 붉은 관인이 유난히 선명하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운다. 붉은 빛이 목책 사이로 길게 드리운다.

규홍, 오주일, 임정현, 관희, 재보가 둘러앉아 있다.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 특유의 나른한 피로가 배어 있다.

복만이 숨을 헐떡이며 급히 올라온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복만 대장.

사람들이 본다.

복만 내일 왜놈들 군량이 새재로 넘어간다고. 수레 하나. 짐꾼 서너명이랍니다.

안규홍 호위는?

복만 많지 않다 합디다.

오주일이 자세를 고쳐 앉는다.

오주일 누가 그랬습니까?

복만이 잠깐 머뭇거린다. 시선이 살짝 흔들린다.

복만 장터에서 들었소.

임정현 누구한테 들었소?

복만 (조금 짜증스럽게) 그게 뭐이 중요하오. 정보가 딱 들어맞는지가 중요하다.

오주일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잠깐 감돈다. 관희가 그 침묵을 깨듯 끼어든다.

이관희 쌀 한 수레면 한동안 걱정 없겠는디.

임정현이 손끝으로 흙바닥을 짚으며 생각한다.

임정현 하루만 두고 알아보지요.

규홍이 말없이 사람들을 본다. 시선이 한 명씩 옮겨간다. 잠시 생각한다.

안규홍 하루 지나면 수레는 넘어가고 없소.

오주일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규홍이 고개를 끄덕인다. 부정하지 않는다.

안규홍 그럴 수도 있제.

오주일이 규홍을 본다. 그 태연함이 의아하다는 눈빛.

안규홍 그렇게 욕심내지 맙시다. 쌀만 빼앗고 바로 빠지는 걸로.

잠시.

안규홍 재보 형씨는 뒤에서 보고, 주일 형씨는 빠질 길부터 봐주쇼.

오주일 대장은요?

안규홍 내가 앞에 가야제.

관희 나는?

안규홍 넌 나 따라오고.

관희가 씩 웃는다. 긴장을 애써 걷어내려는 웃음이다.

이관희 예, 대장님.

규홍이 사람들을 둘러본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안규홍 사람 하나 안 다치는 게 먼저요. 쌀은 그 다음이고.

오주일이 잠시 규홍을 본다. 못마땅함이 조금 남아 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오주일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각자 준비한다. 총을 점검하는 손, 짚신을 고쳐 매는 손.

규홍도 낫을 집어 허리춤에 찬다. 손끝으로 낫을 한 번 훑는다.

조금 떨어진 곳. 복만만 그대로 서 있다.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가만히.

자기가 가져온 정보 하나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 무게가 얼굴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S#39. 새재 산길 / 낮

숲속.

규홍, 관희, 재보, 오주일, 대장장이와 의병들이 나무 사이에 몸을 낮추고 있다.

멀리 수레 한 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호위 일본군은 둘. 짐꾼 서너명

관희가 규홍을 본다. 정보 그대로다.

규홍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뒤쪽의 오주일을 본다.

오주일이 산길 주변을 살핀다. 잠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수레가 가까워진다. 규홍이 손을 든다.

조금 더! 손이 떨어진다.

안규홍 지금!

탕-!

재보의 총성과 함께 의병들이 뛰쳐나간다.

관회가 수레꾼을 끌어내리고, 의병들이 일본군 하나에게 달라붙는다.

짧은 육박전. 순식간에 제압된다. 너무 쉽다.

이관회 됐다!

규홍이 주변을 살핀다.

안규홍 쌀만 빼! 오래 붙지 마!

의병들이 수레에 달라붙는 순간!

빠익~ 산 위에서 새소리 같은 짧은 신호.

오주일의 얼굴이 굳는다.

오주일 대장!

탕! 탕!

양쪽 능선에서 총성이 쏟아진다.

의병 하나가 그대로 쓰러진다.

안규홍 옆드려!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본군들.

오주일 함정입니다! 쌀 버려!

의병들이 흠어진다.

그때 총에 맞은 의병 하나가 쓰러진다. 대장장이가 달려가 부축한다.

대장장이 일어나! 가자!

부상자를 앞으로 밀어낸다.

탕-! 대장장이의 몸이 멈춘다. 등에 피가 번진다.

규홍이 본다.

안규홍 안 돼!

규홍이 뛰쳐나가려 한다. 오주일이 붙잡는다.

오주일 죽었습니다!

규홍이 몸을 뿌리친다.

안규홍 놔!

총탄 하나가 바로 옆 나무를 때린다.

광! 오주일이 규홍을 노려본다.

오주일 지금 안 빠지면 다 죽습니다!

규홍이 쓰러진 대장장이를 본다. 이를 악문다.

안규홍 ...철수!

의병들이 숲으로 빠진다. 규홍도 돌아선다.

조금 떨어진 곳 복만이 그것을 본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S#40. 박제현 집 마당 / 낮

광! 대문이 열린다.

배상도와 일본 헌병들이 들어온다. 집안사람들이 놀라 나온다.

박제현이 사랑채에서 나온다.

박제현 무슨 일이냐.

배상도 의병에게 군량을 제공한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박제현이 배상도를 본다.

박제현 ...상도야.

배상도의 표정이 잠깐 흔들린다. 시선을 피하듯 턱을 든다.

배상도 이제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오.

헌병들이 박제현의 팔을 잡는다. 거칠게 비튼다.

법화댁이 나온다.

법화댁 나리!

박제현이 손으로 막는다. 괜찮다는 듯.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밖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진성과 박상현.

박진성 형님!

진성이 앞으로 나가려 한다. 박상현이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는다.

진성이 돌아본다. 상현 자신도 순간 당황한다.

그러나— 손을 놓지 않는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박제현이 끌려나간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대문 안쪽을 한 번 바라본다.

박상현의 시선이 그 뒤를 오래 쫓는다.

S#41. 파청 산채 / 밤

침묵. 아침과 완전히 다른 산채.

군데군데 부상자의 신음. 모닥불 하나가 유난히 낮게 타들어간다.

대장장이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가 쓰던 망치만 놓여 있다. 아무도 그 옆에 앉지 않는다.

임정현이 앉아 무언가 적는다. 붓이 멈춘다.

임정현 성함을... 뭐라고 적어야 하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관희 그라고 본께 이름도 모르네잉...

염재보 잘됐제. 의병허다 걸리믄 그 식솔들까지 망허게 해분다는디,
차라리 이름을 암도 모르는 거시 나서...

잠시 후 누군가 조용히 이름을 알려준다. 임정현이 적는다. 붓끝이 가늘게 떨린다.

규홍이 그것을 보고 있다.

안규홍 내가 가자고 했소.

오주일이 본다.

안규홍 확인하자는 것도 내가 안 들었고.

내 잘못이오.

복만이 고개를 든다. 말하려 한다.

복만 그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규홍이 일어난다.

안규홍 죽은 사람 집부터 알아보십시오.

임정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규홍이 돌아선다. 그 그림자가 빈 망치 옆을 지나간다.
복만은 바닥을 본다.

S#42. 관청 뒤편 골목 / 밤

어두한 관청 담장 아래.
박상현이 서성인다.
멀리서 배상도가 걸어온다.

배상도 이 밤중에 어떤 일이십니까.

박상현이 다가간다.

박상현 형님을 좀 빼주게.

배상도가 박상현을 본다.
뜻밖이라는 듯 피식 웃는다.

배상도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박상현 자네가 일본 사람들하고 통하지 않나.

배상도가 박상현을 위아래로 훑는다.

배상도 박 나리께서... 저한테 부탁을 다 하시고.

박상현의 얼굴이 굳는다. 모욕을 삼킨다.

박상현 내가 뭘 하면 되겠나.

배상도의 눈빛이 잠깐 달라진다. 계산이 스치는 눈빛. 하지만 이내 표정을 지운다.

배상도 됐습니다.
박상현 됐다니.
배상도 나리가 뭘 하실 게 있겠습니까. 형님 걱정애 여기까지 오신 거지.

배상도가 지나가려 한다.

박상현 상도야.

배상도가 멈춘다.

박상현 형님만은... 무사하게 해주게.

배상도는 돌아보지 않는다.

배상도 ...알아는 보지요.

박상현 잠깐!

배상도가 돌아본다.

박상현 개홍이... 잡고 싶지 않은가?

배상도가 핵 돌아본다.

박상현 거참,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잘 알잖여.
 본인 안 잡히면... 옆에 붙은 것부터 건드리는 거.

배상도의 눈빛이 달라진다.

박상현 그 뭐시냐... 개홍이 옆에 붙어댕기는 사람들 있제.
 특히 그 개집아이.

배상도 ...달래?

박상현이 잠깐 배상도를 본다.

박상현 이름까진 모르겠고. 잘 살펴보라는 말이여.

배상도의 입가에 천천히 웃음이 번진다.

배상도 아...

이제야 알겠다는 얼굴.

관청 안쪽에서 희미한 비명 소리. 상현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

S#43. 관청 앞 / 아침

문이 열린다. 수척해진 박제현이 나온다. 걸음이 휘청인다.

법화맥이 달려가 부축한다. 박진성도 있다.

조금 떨어진 곳- 박상현. 형의 물골을 보고도 다가서지 못한다.

박제현이 동생을 본다.

박제현 니가 애썼다더구나.

박상현이 애써 웃는다. 입꼬리만 겨우 올라간다.

박상현 형님만 무사하면 됐습니다.

박제현이 어깨를 한번 두드린다. 손끝이 떨린다.

상현은 웃지 못한다. 형의 손이 어깨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그때, 순사들에게 잡혀서 끌려오는 달래. 머리는 흐트러지고, 양손은 포박당하였다.

뒷 따라오는 배상도와 눈을 마주치는 상현.

씩~ 웃어보이며 건물로 들어가는 상도.

S#44. 감옥 취조실 / 밤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취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토미이시와 달래가 앉아 있다.

달래의 얼굴에 핏자국과 흙먼지가 자욱하다. 뒤편 짙은 그림자 속에 배상도가 서 있다.

토미이시 (일본어) 안규홍은 어디 있지.

달래 모르오.

토미이시가 담배를 입에 물고 천천히 연기를 뿜어낸다.

비웃음도, 분노도 없는 서늘한 눈빛.

토미이시 이상하군. 장터에서 일이 생기면 네가 산으로 간다.

헌병이 움직여도 산으로 가고. 박제현 집에 일이

생겨도 산으로 가고.

달래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린다.

토미이시 (일본어) 그런데 매번 나물을 캐러 간다?

달래 나물 캐러 갔소.

토미이시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토미이시 (일본어) 그렇겠지. 산에는 나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가 산에 다녀오고 나면 안규홍은

우리가 움직인 걸 이미 알고 있더군.

달래가 피 묻은 입술을 다물고 토미이시를 노려본다.

토미이시 (일본어) 안규홍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더군.

달래가 토미이시를 본다.

토미이시 (일본어) 피붙이도 아닌데. 참 열심히 뛰었어.

토미이시가 지휘봉 끝으로 뒤편의 배상도를 가볍게 가리킨다.

토미이시 (일본어) 배상도는 얼굴을 안다.
 넌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알고 있고.

잠시.

토미이시 (일본어)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다.

달래의 턱줄기가 팽팽하게 당겨진다.
토미이시가 상체를 앞으로 지그시 기울인다.
목소리가 나직해지며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한다.

토미이시 (일본어) 산채 위치가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안규홍도 필요 없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 이름 하나. 하나면 된다.

달래가 피 묻은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며 토미이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달래 ...모른다. 차라리 날 죽여라..날 죽여. 이 왜놈새끼들아

토미이시가 잠시 달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본다.
소리를 지르지도,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는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토미이시.

토미이시 (일본어) 알았다.

문 앞으로 걸어가는 토미이시.
문 손잡이를 잡고 멈춰 선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하게 명령을 뱉는다.

토미이시 (일본어) 계속해.

문이 닫힌다.
심문과 고문이 계속되고, 달래의 비명이 잔인하게 지속된다.

인서트
달래의 비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욱한 새벽안개가 깔린 산길.

숲길 저편에서 관회와 복만이 수레를 끌고 들어온다.
바위에 올라선 규홍이 목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S#45. 파청 산채 / 밤

달래의 시신이 짚명석 위에 누어져 있다.
관회가 옆에 주저앉아 있다. 재보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오주일과 의병들이 조금 떨어져 서 있다.
규홍이 달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달래의 피, 흙 묻은 손을 든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낀 흙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낸다. 그러다 손이 멈춘다.
달래의 손가락에 걸린 반쪽 옥가락지. 규홍의 목에도 나머지 반쪽이 걸려 있다.
규홍이 한동안 그것을 바라본다.

안규홍 (낮게) ...감자도 못 사줬는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염재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염재보 주재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더라.
 끝까지...아무 말도 안하고...

규홍의 눈이 천천히 재보에게 깐다. 재보는 끝내 눈을 들지 못한다.
규홍이 다시 달래를 본다. 천천히 일어난다.
낮을 집는다.

안규홍 가자.

오주일이 앞을 막는다.

오주일 어딜 말입니까.
안규홍 주재소

관회도 일어난다.

이관회 안 돼!
안규홍 비켜.
이관회 지금 내려가면 다 죽어.

규홍이 관회를 거칠게 밀친다..

안규홍 비키라고!

규홍이 나가려 한다. 재보와 오주일이 달려들어 규홍을 붙든다. 규홍이 거칠게 뿌리친다.

안규홍 낚! 낚!

다시 빠져나가려다 힘이 멎는다. 규홍의 시선이 달래에게 간다.

그리고 규홍의 손에서 낚이 떨어진다.
툭.

안규홍 사람이 자꾸 죽잖아...

목소리가 무너진다.

안규홍 사람이 자꾸 죽는다...
나는 뭐를 지킨다고 대장이여,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

안규홍 내가 뭘 놈의 대장이란 말이여...

순간- 모두 멈춘다.

규홍의 힘이 완전히 빠진다. 달래 곁에 주저앉는다.

규홍이 달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쥘다. 가락지가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닿는다.

규홍이 한도안 그 손을 바라본다. 이내 목에 걸린 자기 반쪽 가락지를 벗는다

달래의 손을 펴, 두 개를 함께 쥐여준다.

손가락을 하나씩 다시 오므려준다.

안규홍 갖고 있다가...

말이 한번 막힌다.

안규홍 다시 만나든 그때 줘라이.
액운 쫓는 부적인께...

규홍이 달래의 손을 놓지 못한다. 관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다.

숨죽인 울음. 재보와 오주일은 멀찍이 서 있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다.

S#46. 파청 산채 / 아침

아침 햇살이 편백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온다.

밤새 씻지 못한 규홍.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엔 흙이 말라붙어 있다.
흐트러졌던 머리는 다시 단단히 묶었다.
목에는 아무것도 없다. 규홍이 무심코 빈 목을 한번 만진다.

산채 한가운데. 의병들이 둘러앉아 있다.
규홍이 사람들을 천천히 본다. 백정. 목수. 재보. 임정현. 오주일. 복만. 관회.

안규홍 소 잡던 사람도 있고, 나무 만지던 사람도 있고, 산짐승 잡던 사람도 있고...

정현을 본다,

안규홍 글만 쓰던 사람도 있고.
 나하고 관회는 남의 집 품 팔아 목고살았고.

관회가 규홍을 본다.

이관회 나는 왜 꼭 니하고 묶이냐.

작은 웃음. 규홍도 잠깐 웃는다.
곧 다시 사람들을 본다.

안규홍 근디 지금은 다 총 들고 여기 앉아 있소.

조용해진다.

안규홍 나라 지킨다는 거창한 말은... 나도 잘 모르겠소.

규홍이 사람들을 한 명씩 본다.

안규홍 나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다시 살았으면 좋겠소.
 그때까지는... 서로 살려봅시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규홍이 오주일을 본다.

오주일이 규홍을 본다.

안규홍 주일 형씨는 사람들 자리 좀 봐주쇼.
 누구 하나 위험하다고 우르르 가지 말고.
 가야 할 사람이 가는 걸로.

오주일 예.

안규홍 재보 형씨는 총 쏠 자리 몇 군데 봐두고.

임정현 정현 선비는 탄약 여기저기 나눠놓고.
안규홍 그건 걱정마십시오. 대장
 복만 형씨는 뒤쪽 길 좀 봐주쇼.

복만도 고개를 끄덕인다. 규홍이 모두를 본다.

안규홍 그리고...내가 안 보여도, 각자 자기 할 일은 하는 걸로 합시다.
이관회 어디 갈라고?
안규홍 안 가, 이 새끼야.

웃음.
사람들이 하나둘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다.
규홍은 그 모습을 바라본다.

S#47. 파청 산채 / 아침

산 아래서 인기척.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발소리.
의병들이 돌아본다. 몇몇은 손에 든 총을 슬며시 고쳐 쥔다.
박상현이 짐꾼 둘과 함께 올라온다.
쌀자루와 반찬 꾸러미, 술 한 병이 지게 위에 실려 있다. 관회가 반색한다.

이관회 오메, 이게 다 뭐다요.
박상현 형님이 보냈다.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라.

의병들이 짐을 받아든다. 규홍이 다가온다.

안규홍 나리께서 보내셨습니까?
박상현 그래.

박상현이 규홍을 잠깐 본다. 시선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가 돌아온다.

박상현 그리고 형님이 하실 말씀이 있단다. 꼭 안 대장을 데려오라시더라.
안규홍 나리께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박상현이 주변을 한번 본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다.

박상현 여기서서 말하기 어렵네. 다시 잡혀갈 수도 있어.

규홍의 얼굴이 굳는다. 상현이 관회를 본다.

박상현 관회, 니도 같이 가자. 가서 손 좀 보태라.
이관회 나는 왜요?

박상현 오래 안 걸린다.

관희가 규홍을 본다. 규홍이 고개를 끄덕인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임정현. 쌀자루를 세다 말고 손이 멈춘다.

임정현 대장.

규홍이 돌아본다.
정현이 박상현을 한번 보고—

임정현 나리께서 사람을 보내셔도 될 일인데... 직접 올라오셨네요.

상현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규홍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관희의 어깨를 친다.

안규홍 나리께 급한 일이 있나 보제. 가자

규홍과 관희가 박상현을 따라 산길을 내려간다.
임정현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본다.
뒤에서

의병(O.S) 밥이다! 밥

꾸러미를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든다. 왁자한 소리가 산채를 채운다.
정현도 시선을 거두고 그쪽으로 간다. 그러나 걸음이 한 박자 느리다.

S#48. 복내 장터 / 낮

규홍과 관희, 박상현이 장터로 들어선다. 익숙한 곳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규홍을 알아본 상인이 눈을 피한다. 다른 상인은 규홍을 보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관희의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

이관희 ...야.

규홍도 걸음을 늦춘다.

안규홍 나리.

상현은 돌아보지 않는다.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 있다.

안규홍 박 나리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다. 규

짚신전 앞. 최 서방과 눈이 마주친다.
최 서방이 아주 작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규홍이 멈춘다. 관회도 멈춘다.
스윽- 앞쪽 골목에서 칼을 찬 일진회원들이 나온다.
관회가 뒤를 돌아본다. 뒤쪽에서도 나온다. 길이 막혔다.

이관회 ...규홍아.

그 순간- 박상현이 규홍의 등을 거칠게 밀친다. 규홍이 휘청인다.
상현이 일진회 뒤로 뛰어든다.
관회가 규홍을 붙잡는다. 규홍이 몸을 세운다. 박상현을 바라본다.

안규홍 ...나리.

상현은 눈을 피한다. 규홍의 표정이 굳는다. 관회가 이를 악문다.

이관회 이 개새끼가...

규홍이 관회의 앞을 팔로 막는다. 시선은 상현에게 박혀 있다.

안규홍 설마... 산채까지?

상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답이다.
규홍의 얼굴이 무너지듯 굳는다.
그 순간- 일진회원 하나가 칼을 뽑는다.
챙!
뒤이어 일제히 뽑히는 칼.
챙! 챙!
관회가 규홍 옆으로 붙는다. 등이 서로 맞닿는다.

이관회 뒤는 내가 볼게.

규홍이 낫을 움켜쥐다. 손잡이의 흠이 손바닥에 배긴다.
일진회가 달려든다.

S#49. 파청 산채 인근 편백숲 / 낮

사박. 이슬 젖은 낙엽 위로 군화가 내려앉는다.
또 한 발. 또 한 발.
편백 사이로 일본군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두 갈래.
총을 가슴 높이로 든 채 말 한마디 없다.
선두의 일본군이 주먹을 든다. 일제히 멈춘다.

나무 사이 저 멀리- 연기 한 줄기가 올라온다. 파청 산채.
선두가 뒤를 향해 손짓한다. 왼쪽. 오른쪽.
일본군들이 소리 없이 갈라진다. 낙엽 하나 밟는 소리조차 조심스럽다.

S#50. 파청 산채 / 낮

딸그락. 밥그릇 부딪는 소리.
의병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오랜만의 쌀밥.

의병4 야, 그것 좀 남겨라.
의병5 먼저 먹는 놈이 임자제.

웃음이 터진다. 재보가 밥을 크게 한 숟갈 뜬다.

염재보 아따..밥이 밥 같네.

정현도 피식 웃는다. 오주일은 먹으면서도 습관처럼 숲 쪽을 한번 본다.
조금 떨어진 곳. 보초 의병 하나가 숲을 지켜보고 있다.

S#51. 복내 장터 / 낮 - 같은 시각

챙!
칼이 규홍의 얼굴 앞으로 떨어진다. 규홍이 낫자루로 막는다.
옆에서 다른 놈이 달려든다. 관희가 몸으로 들이받는다.
와장창!
둘이 좌판 위로 넘어간다.
규홍이 한 놈의 손목을 꺾는다.
챙그랑! 칼이 떨어진다. 하지만 앞에서 둘이 더 달려든다.

이관희 야, 겁나 많다.
안규홍 세지 마!

칼이 다시 쏟아진다.
규홍이 하나를 막는 순간 뒤에서 들어온 칼날이 등을 긁는다.

안규홍 크윽-

관희가 돌아본다.

이관희 규홍아!
안규홍 앞에 봐!

규홍이 몸을 돌려 낫자루로 놈의 얼굴을 후려친다.
퍽!
둘은 다시 등을 맞댄다.

S#52. 파청 산채 / 낮 - 같은 시각

산채가 내려다보이는 능선.
토미이시와 배상도가 내려다보고 있다.

토미이시 (일본어) 안규홍은?
배상도 (일본어) 지금쯤 장터에서 끝났을 겁니다.

토미이시가 산채를 내려다본다.

토미이시 (일본어) 그럼 여긴 더 쉽겠군.

토미이시가 다시 산채를 본다.
손가락 두 개를 편다. 일본군들이 좌우로 갈라진다. 산채를 감싼다.
배상도가 침을 삼킨다. 토미이시가 천천히 오른팔을 든다.

S#53. 복내 장터 / 낮 - 같은 시각

관희가 칼을 피한다.
늦었다.
서걱!
옆구리가 베인다. 관희가 이를 악문다.

이관희 아씨...

규홍이 본다.

안규홍 관희야!

규홍이 가려는 순간 일진회 대장이 길을 막는다.
관희가 한 손으로 옆구리를 누른 채 앞의 놈을 걷어찬다.
퍽!

이관희 앞이나 봐, 이 새끼야!

규홍이 이를 악물고 다시 돌아선다.

S#54. 파청 산채 / 낮 - 같은 시각

산채 바깥. 보초를 서던 의병 하나.
고요한 숲을 바라본다.
그때 나무 뒤에서 검은 총구 하나가 아주 천천히 나온다.
보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본다.
정현이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든다.

오주일 왜 그러시오.

정현이 숲 쪽을 본다.

임정현 ...아닙니다.

다시 편백 사이. 총구 하나. 반대편에도 하나.
산채를 둘러싼다.

S#55. 복내 장터 / 낮 - 같은 시각

관회의 숨이 거칠다.
한 손으로 옆구리를 누른 채 몽둥이를 휘두른다.
퍽!
놈 하나가 쓰러진다. 관회의 다리가 순간 휘청.
규홍은 앞의 놈과 엉켜 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 낫자루로 턱을 올려친다.
그리고 관회를 본다.
관회 뒤편. 칼을 든 일진회원 하나가 다가오고 있다. 규홍의 눈이 커진다.

안규홍 관회야!!

관회가 돌아본다. 늦었다.
퍽-!
칼이 관회의 배를 파고든다. 관회의 몸이 굳는다.
규홍의 눈. 관회와 눈이 마주친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어진다.

칼이 빠진다.
관회의 무릎이 꺾인다.

안규홍 관회야!!

규홍이 미친 듯이 달려가려 한다. 하지만 앞을 일진회 대장이 막는다.
규홍이 놈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퍽!

관회는 배를 움켜쥔 채 주저앉는다. 자기를 찢른 놈이 돌아서려는 순간.
관회가 놈의 발목을 붙잡는다.
마지막 힘으로 몽둥이를 휘두른다.
퍽!

놈이 쓰러진다. 관회도 옆으로 무너진다.
규홍이 마지막 일진회 대장을 베고 관회에게 달려간다.
관회의 다리가 풀린다. 규홍이 달려와 관회를 붙잡는다.
둘이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는다.

안규홍 야. 야, 봐봐.

규홍이 관회의 배를 누른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번진다.
관회의 눈이 겨우 규홍을 향한다.

안규홍 일어나. 산채 가야제.

관회가 숨을 들이마시려 한다. 잘 되지 않는다. 그래도 희미하게 웃는다.

이관회 ...그러니까 가.

안규홍 뭘 소리여. 같이 가야제.

관회가 규홍의 옷깃을 잡는다. 힘이 없다.

이관회 산채 가라고... 이 새끼야.

규홍이 굳는다.
관회의 손이 천천히 규홍의 옷깃에서 미끄러진다.

안규홍 관회야.

관회가 규홍을 보고 있다. 눈은 떠 있는데 더는 초점이 없다.

안규홍 야... 이관회!

대답이 없다. 규홍이 그대로 멈춘다.
그 순간- 와장창! 멀리서 좌판 무너지는 소리.
규홍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박상현이 달아나고 있다. 규홍이 그를 본다.
방금까지 떨리던 규홍의 숨이 멎는다.
천천히 관회를 내려놓는다.
피 묻은 냇을 집는다.
일어난다.

S#56. 파청 산채 인근 능선 - 파청 산채 / 낮 - 같은 시각

토미이시 오른팔을 든 채 산채를 바라본다.

CUT TO.

재보가 마지막 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다.

밥그릇을 내려놓는다.

딸그락.

CUT TO.

보초 의병. 숲을 바라보다 멈춘다.

편백나무 뒤. 총구.

보초의 표정이 굳고 눈이 커진다.

보초 의병 왜!

CUT TO.

토미이시의 팔이 떨어진다.

탕!

보초가 뒤로 꺾인다.

곧이어 콰콰광! 쿵! 쿵!

사방에서 일제사격. 밥그릇이 깨진다. 의병 하나가 밥을 씹던 그대로 쓰러진다.

술이 뒤집힌다.

비명.

오주일이 벌떡 일어난다.

오주일 옆드려!!!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한 의병이 놀라 산채 뒤편으로 달린다.

오주일 가지 마! 자리 지켜!

하지만 늦었다. 편백 사이에서 일본군이 튀어나온다.

탕! 의병이 쓰러진다.

반대편으로 달아난 의병 둘. 그쪽에서도 총구. 완전히 포위됐다.

탕!

총탄이 재보의 어깨를 관통한다. 화승총을 놓칠 뻔한다.

염재보 크윽...!

재보가 이를 악물고 다시 총을 끌어안는다.

정현이 옆드린 채 주변을 본다. 쓰러진 사람들. 놀라 굳어 있는 의병들.

임정현 탄약!

아무도 듣지 못한다.

정현이 옆 의병의 팔을 붙잡는다.

임정현 저 나무 밑! 돌 밑에 있소!

의병이 몸을 낮춰 뛰어간다.

탕!

총알이 정현 바로 옆에 박힌다. 흙이 얼굴에 튄다.

정현이 반사적으로 산채 움막 뒤로 몸을 숨긴다.

숨을 몰아쉰다. 손이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낀다.

저쪽— 의병이 나무 밑 돌을 젖힌다. 천에 싸인 탄약 꾸러미.

정현이 바위 틈으로 그 모습을 본다. 의병과 눈이 마주친다.

정현의 얼굴에 안도가 스친다.

임정현 그거 나눠!

다른 쪽에서 총성이 터진다.

탕! 정현이 움찔한다. 산채 움막에 몸을 붙인다. 숨을 고른다. 손이 떨린다. .

정현이 다시 몸을 조금 내밀어 다른 쪽을 가리킨다.

임정현 저쪽에도 있소! 큰 나무...

탕!

정현의 몸이 멈춘다. 가슴에 피가 번진다.

정현이 움막에 기대듯 천천히 주저앉는다.

오주일이 돌아본다.

오주일 정현아!

정현은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는다.

오주일이 몸을 반쯤 일으켜 가려는 순간—

광! 광!

둘 사이로 총탄이 쏟아진다.

오주일이 다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다. 바위 너머 정현을 본다. 손 하나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갈 수 없다. 오주일의 눈이 붉어진다.

오주일 씨발...

이를 악문다.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선다.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갈라진다.

오주일 옆드려! 움직이지 마!! 자기 자리 지켜!!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조금씩 제자리로 몸을 낮춘다. 재보가 피 흐르는 어깨로 총을 든다. 일본군의 총구가 다시 올라온다.

S#57. 복내 장터 / 낮 - 같은 시각

박상현이 달린다.
뒤에서 규홍의 거친 숨. 상현이 돌아본다.
피투성이 규홍이 낮을 든 채 다가온다.
박상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박상현 개홍아. 잠깐-

규홍은 멈추지 않는다.

박상현 나도 어쩔 수가-

획!
낮이 날아간다.
퍽! 상현의 등에 박힌다. 몸이 벽에 부딪힌다.
규홍이 따라온다. 피투성이. 손에는 또 하나의 낮.
규홍이 등에 박힌 낮을 뺀다. 박상현이 벽을 타고 무너진다. 흙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진다.
규홍은 내려다보지 않는다. 돌아선다.

저 멀리 저잣거리 한복판에 일진회 시체들과 함께 관회가 쓰러져 있다.
인적이 흩어진 거리에 놓여 있는 몸.
규홍이 관회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그때 산 너머에서.
광! 광! 광!
연달아 터지는 총성.
규홍의 걸음이 멈춘다. 몸이 그대로 굳는다.
또-
광! 광!
규홍이 산을 본다. 다시 관회를 본다. 움직이지 않는 관회.

규홍의 눈이 붉어진다.
잠깐. 규홍이 관희에게 등을 돌린다. 그 등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리고 산을 향해 뛴다.

S#58. 파청 산채 / 낮

총성이 뜬해진다.
화약 연기 사이로 산채가 드러난다.
뒤집힌 솔. 깨진 밥그릇. 흙과 피에 뒤섞인 쌀밥.
곳곳에 쓰러져 있는 의병들. 정현도 쓰러진 자리 그대로다.
일본군들이 천천히 산채 안으로 들어온다. 총검 끝으로 쓰러진 몸들을 확인한다.
한 의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일본군의 군화가 멈춘다.
푹! 곧 정적.
능선 위. 토미이시가 산채를 내려다본다.

토미이시 (일본어) 철수한다.

일본군 일부가 하산하기 시작한다.
배상도가 산채를 한 번 돌아본 뒤 뒤따른다.

S#59. 파청 오르는 숲길 / 낮

규홍이 혼자 산을 오른다.
등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저고리를 적시고 있다.
탕!
산 위에서 총성. 규홍이 더 빨리 오른다. 비탈에서 발을 헛디딘다.
쿵!
규홍이 흙바닥에 처박힌다. 잠시 일어나지 못한다.
뒤를 돌아본다. 나무 사이로 저잣거리 쪽이 아득하게 내려다보인다.
관희가 쓰러져 있던 곳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규홍의 손이 흙을 움켜진다.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킨다. 다시 산을 오른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반대편 산길.
토미이시를 비롯한 일본군 일부가 하산하고 있다. 두 길은 서로 어긋난다.

S#60. 파청 산채 / 낮

규홍이 능선을 넘어선다. 걸음이 멎는다.
산채.
연기.
쓰러진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규홍이 천천히 내려간다.
발밑. 깨진 밥그릇. 흙과 피 속에 흩어진 하얀 쌀밥.

규홍의 시선이 움직인다.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 백정. 목수. 그리고－ 정현.
눈을 뜬 채 쓰러져 있다. 규홍의 걸음이 멈춘다.
아침의 목소리가 겹치는 듯하다.

안규홍(V.O) 소 잡던 사람..나무 만지던 사람..글 쓰던 사람..

규홍의 얼굴이 굳는다.
저편에서 인기척. 규홍이 나무 뒤로 몸을 숨긴다.
일본군 하나가 쓰러진 의병을 군화로 뒤집는다.
총검으로 찌른다.
푹.
반응이 없다. 일본군이 다음 시신으로 간다.
규홍이 산채를 둘러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숨소리 하나 없다.
규홍이 피 묻은 쌍나발을 움켜쥐다. 말없이 숲속으로 사라진다.

S#61. 파청 산채 / 낮 - 계속

일본군 하나가 무너진 움막 뒤편으로 들어온다.
주변을 살핀다. 고요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무 그림자. 안규홍의 눈.
일본군이 지나치는 순간 규홍의 팔이 목을 감는다.
일본군이 발버둥 친다. 규홍이 입을 틀어막은 채 그대로 숲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잠시 후 움직임이 멎는다.
규홍이 시신을 내려놓는다. 총을 집으려다 멈춘다.
사각－
아주 작은 소리. 규홍이 돌아본다. 총을 움켜쥐고 몸을 낮춘다. 나무 뒤를 돈다.
쓰러진 의병들 사이. 무언가 움직인다. 규홍이 낫을 든 채 다가간다.
그 순간 피 묻은 손이 화승총을 움켜쥐다. 규홍이 멈춘다.
재보다. 어깨가 피로 흥건하다. 숨을 죽인 채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 엮드려 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재보도 놀란다.

염재보 (거의 숨소리로) ...대장.

규홍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때 다른 쪽에서 미세한 움직임. 규홍과 재보가 동시에 돌아본다.
무너진 나무더미 아래에서 오주일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허벅지에 피가 흐른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바위 뒤 복만도 모습을 드러낸다.
한쪽 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한다.
규홍이 세 사람을 바라본다. 재보. 오주일. 복만.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있다.
규홍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오주일도 끄덕인다.

말이 없다.

규홍이 산채 쪽을 돌아본다. 일본군 하나가 나무 사이를 지나간다.

규홍이 재보를 본다. 산새소리를 입과 손바닥을 이용해 낸다.

재보가 알아들은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곤 화승총을 움켜쥔다.

규홍이 일부러 소리를 낸다. 나뭇가지를 밟는 척, 그림자를 슬쩍 드러낸다.

일본군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다. 총구를 돌린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탕!

재보의 총. 일본군이 미처 돌아보지도 못하고 쓰러진다.

규홍이 재보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재보도 마찬가지다.

말 한마디 없이 새소리와 눈짓만으로 서로의 자리를 확인한다.

이번엔 오주일이 손짓한다.

오주일 (낮게) 자리는 그대로.

복만이 바위 뒤로 몸을 낮춘다. 재보는 총을 다시 장전한다.

규홍이 숲속으로 움직인다.

S#62. 파청 산채 하산 숲길/ 낮 - 계속

탕!

산 위쪽에서 총성이 울린다.

하산하던 토미이시가 걸음을 멈춘다.

다시

탕!

희미한 비명이 이어진다.

토미이시가 산 위를 올려다본다.

토미이시 (일본어) 돌아간다.

일본군들이 몸을 돌려 다시 산을 오른다.

배상도는 불안한 얼굴로 뒤따른다.

배상도 (일본어) 남은 놈들입니다. 그냥 내려가시지요.

토미이시가 배상도를 본다.

토미이시 (일본어) 남은 놈들이 총을 쏘고 있잖아.

몇 걸음 오르지 않아—

탕!

일본군 하나가 쓰러진다. 일제히 총구가 숲을 향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토미이시 (일본어) 전진해!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오른다.

탕!

또 한 명이 고꾸라진다.

이번엔 반대쪽—

탕!

뒤따르던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일본군들의 대열이 흔들린다. 토미이시가 좌우 숲을 노려본다.

나무 사이로 순간순간 스치는 그림자들. 한 명이 아니다.

토미이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진다.

토미이시 (일본어) 흠어지지 마! 돌씩 붙어!

병사들이 급히 서로 붙는다.

그 순간—

탕! 탕!

또 두 명이 쓰러진다.

배상도의 얼굴이 굳는다.

배상도 (일본어) 내려가야 합니다.

토미이시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를 악문 채 산 위를 노려본다.

그때 나무 사이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낸다.

피와 흙투성이의 규홍.

토미이시가 멈춘다.

규홍도 멈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배상도 슬그머니 뒷걸음지 하며 달아난다.

S#63. 파청 산채 / 낮

이미 시작된 규홍과 토미이시의 대결.

규홍의 낫과 토미이시의 칼이 거칠게 부딪친다.

챙! 챙!

토미이시가 몰아붙인다. 규홍이 한 걸음씩 밀린다.

등의 상처가 터지며 저고리 위로 피가 번진다.

토미이시가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내리친다.

챙!

규홍이 낫으로 가까스로 막아낸다.

다시

챙!

이번에는 버티지 못한다. 낫이 규홍의 손에서 튕겨 나가 흙바닥을 구른다.
토미이시의 칼이 곧장 규홍을 향한다.
규홍이 몸을 틀어 피하며 토미이시에게 달려든다.
둘의 몸이 세계 부딪친다. 칼도 떨어진다.
그대로 뒤엎겨 비탈을 구른다.
규홍이 토미이시의 얼굴을 후려친다.
퍽!
토미이시도 그대로 받아친다.
퍽!
규홍이 다시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토미이시가 규홍의 상처 난 등을 걷어찬다.
규홍이 비명을 삼키며 앞으로 고꾸라진다. 토미이시가 달려들어 규홍 위에 올라탄다.
두 손으로 목을 조른다.
규홍이 토미이시의 손목을 붙잡는다. 버틴다. 하지만 조금씩 힘이 빠진다.
토미이시의 손가락이 더 깊게 목을 파고든다.
규홍의 시야가 흐려진다. 손에 힘이 풀린다.
그 순간—
규홍이 바닥의 흙을 움켜쥐어 토미이시의 얼굴에 뿌린다.

토미이시 으악!

토미이시가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싼다.
규홍이 몸을 뒤집어 토미이시를 밀쳐낸다.
둘 다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토미이시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칼이 들어온다.
기어가듯 다가가 칼을 잡는다. 규홍도 몸을 일으키려 한다. 팔에 힘을 준다.
하지만 등의 상처가 당기며 다시 무릎이 꺾인다.
토미이시가 칼을 들고 다가온다.
규홍이 뒤로 물러난다.
토미이시가 칼을 치켜든다.
내리친다.
규홍이 몸을 굴린다.
퍽!
칼날이 규홍이 있던 자리에 깊게 박힌다.
규홍의 손이 바닥을 더듬는다.
손끝에 무언가 걸린다.
낫자루.
규홍이 움켜쥔다.
토미이시가 칼을 뽑아 다시 달려든다.
규홍은 아직 등을 보인 채다.
토미이시가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규홍이 몸을 뒤흔 돌린다.

폭!
 낮 끝이 토미이시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힌다.
 토미이시의 몸이 굳는다.
 규홍이 낮을 놓지 않는다.
 토미이시가 이를 악물고 칼을 휘두른다.
 규홍이 몸을 붙여 칼을 피한다.
 그리고－
 낮자루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온몸으로 당긴다.
 짹－
 낮날이 토미이시의 옆구리를 깊게 가르며 빠져나온다.
 토미이시가 휘청인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다.
 규홍을 노려본다.
 규홍도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본다.
 잠깐의 정적.
 토미이시가 마지막 힘을 짜내 칼을 들고 달려든다.
 규홍도 달려든다.
 한순간－
 규홍의 낮이 다시 토미이시의 몸을 파고든다.
 폭!
 토미이시의 움직임이 멎는다.
 두 사람의 얼굴이 코앞이다.
 규홍이 이를 악문 채 낮을 더 깊이 밀어 넣는다.
 토미이시의 손에서 칼이 떨어진다.
 쳇그랑.
 다리에 힘이 풀린다.
 토미이시가 천천히 무너진다.
 규홍은 낮을 쥔 채 그대로 서 있다.
 거친 숨.
 피와 흙으로 범벅된 얼굴.
 쓰러진 토미이시를 내려다본다.
 잠시 후－
 규홍도 결국 한쪽 무릎을 꿇는다.

S#64. 파청 산채 / 낮

정적. 화약 연기가 서서히 걷힌다.
 쓰러진 일본군들. 그러나 산채 역시 처참하다. 죽은 의병들이 훨씬 많다.
 임정현의 시신. 심하게 다친 채보가 나무에 기대앉아 어깨를 움켜쥐고 있다.
 오주일도 팔에 피를 흘리며 서 있다.
 불타거나 무너진 움막.
 아까까지 사람들이 웃으며 먹던 밥그릇과 감자가 피와 흙 속에 흩어져 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는다. 규홍도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듯 눈으로 훑는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다.
규홍이 천천히 일어난다. 복만을 내려다본다. 잠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다. 살아남은 사람들.

안규홍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다친 사람부터.

오주일이 먼저 몸을 움직인다.

오주일 (겨우) 다친 사람... 부축해.

의병들이 서로를 부축하기 시작한다. 느리고 무거운 움직임.

그 순간—
아래 산길에서 소리가 들린다.
쿵. 쿵. 쿵. 쿵.
모두가 멈춘다.
점점 가까워지는 군화 소리. 멀리서 일본어 고함.

일본군(O.S.) (일본어) 위쪽이다! 서둘러!

S#65. 파청 산채가는 길/ 낮

멀리 나무 사이로 일본군 부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앞장선 배상도.
그 뒤로 오십여 명의 일본군.
총검을 단 소총. 말. 군수품을 실은 수레. 수레 위 기관총.
산길을 가득 메운다. (AI 제작)
배상도가 말 한 필의 고삐를 잡고 걷는다.
말 위에는 새로운 헌병대장. 무표정한 얼굴로 산 위를 바라본다.
배상도가 눈치를 보며 말을 건다.

배상도 (일본어)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토미이시 대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헌병대장은 대꾸하지 않는다. 배상도가 다시 올려다본다.

배상도 (일본어)그래도 제가 길은 압니다. 안규홍 놈 산채도—
헌병대장 (일본어) 시끄럽게 말이 많구나.

배상도가 멈칫한다.
헌병대장이 천천히 군도를 뽑는다. 배상도의 눈이 커진다.

서걱-

군도가 배상도의 목을 가른다.

배상도가 고삐를 놓친다.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쥔 채 무너진다.

헌병대장은 쓰러지는 배상도를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군도에 묻은 피를 한 번 털어낸다. 산 위를 바라본다.

헌병대장 (일본어)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일본군 (일본어) 하이!

철컹. 철컹. 일제히 소총을 고쳐 쏜다. 기관총 수레가 앞으로 움직인다.

말발굽. 군화. 수십 명의 일본군이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S#66. 파청 산채 / 낮

큰 부대급 일본군 병력을 보고, 의연하게 눈을 마주친다.

재보가 나무에 기대 있던 몸을 일으킨다.

어깨에서 피가 흐른다. 오주일이 총을 집어 든다.

살아남은 의병 하나가 쓰러진 동료의 총을 빼든다.

또 한 명이 칼을 집는다. 누가 시키지 않았다. 규홍이 그들을 본다.

안규홍 함께해서 영광이었소. 세월이 우리를 잊지 않을것ियो.

의병들. 서로 바라보면 “고마웠오. 원없이 살았고마. 언능 끝내고 밥이나 먹게”

모두 규홍을 바라본다. 규홍이 피 묻은 낫을 고쳐 쏜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

오주일. 재보. 남은 의병들. 규홍이 그들을 한번 본다.

안규홍 가자.

규홍이 먼저 걷는다. 절뚝인다.

그 뒤로 재보. 오주일. 복만. 그리고 살아남은 의병들이 하나둘 따라붙는다.

누군가는 부상자를 부축하고, 누군가는 일본군에게서 빼앗은 총을 메고, 누군가는 빈손이다.

규홍은 앞만 본다.

낫을 든 손은 아래로 늘어져 있다. 사람들이 규홍의 뒤를 따라 걷는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

편백 사이로 피투성이 사람들이 정면을 향해 걸어온다.

규홍이 맨 앞. 그 뒤로 사람들이 점점 화면을 채운다.

어디로 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규홍의 얼굴. 지치고, 피투성이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CUT TO BLACK.

<자막>

머슴 의병장 안규홍(보성, 1879~1911)이 이끈 의병부대는

파청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며 첫 승리를 거두었다.

일제가 남긴 기록에는 그를 이렇게 적고 있다.

“거괴(巨魁) 안규홍.”